21일 Market Index
코스피 3823.84 (+9.15)
코스닥 827.50 (-3.27)
금리(국고채 3년) 2.600 (+0.031)
환율(원·달러) 1429.20 (+10.00)

#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하나금융그룹

# 반도체 뛰어넘는 고용·부가가치 K-바이오, 글로벌서 존재감 확대

**수출로 증명한 K-바이오 경쟁력**
**내수 31.7조·수출 12.7조 달성**
**고용 2055명, 반도체 2.6배 격차**
**투자 확대 통한 지속성장 필요**

〈의약품·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연관표 계수(한국은행 자료 재구성)〉

| 구분 | 2020 | | | 2022 | | |
|---|---|---|---|---|---|---|
| | 의약품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의약품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 생산유발계수 | 1.68 | 1.53 | 1.78 | 1.90 | 1.38 | 2.09 |
| 수입유발계수 | 0.21 | 0.34 | 0.32 | 0.28 | 0.41 | 0.41 |
| 부가가치유발계수 | 0.79 | 0.66 | 0.68 | 0.72 | 0.59 | 0.59 |
| 고용계수(명/십억원) | 1.43 | 0.66 | 1.03 | 1.32 | 0.59 | 0.73 |
| 고용유발계수(명/십억원) | 4.03 | 2.23 | 3.21 | 4.11 | 1.56 | 3.2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제네릭이 기반이 된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테크가 주도하는 혁신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연구원에 의뢰로 실시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31조7000억원, 수출액 12조7000억원으로 한국 제조업 내 전략산업으로 떠올랐다. 2005년과 비교할 경우, 생산액 연평균 6.14%, 수출액 연평균 15.5%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은 3.1배, 수출은 15.5배 확대 됐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며 수출 성과가 두드러진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실적은 2021년 13조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 약 8조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며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기술수출의 중심이 되는 기업들은 대형 제약사에서 바이오 벤처로 점차 다변화 되는 추세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대형 제약사 중심에서 바이오 벤처·플랫폼 기업으로 다변화되고, 수출되는 기술의 유형도 신약 후보물질 외에 제형 전환 또는 플랫폼 기술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의약품 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0억원의 재원이 공통적으로 투입될 경우, 의약품 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22년 한국은행 계수 기준 3600억원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대비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는 2055명으로 반도체 산업의 2.6배, 디스플레이 산업의 1.26배나 높았다.

다만, 투자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R&D) 기반의 기술 집약적이고 설비투자 증가가 신약 개발 및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분야인 반면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지은 부연구위원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가치가 큰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산업 육성정책을 구상, 지원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희귀난치병치료제·원료의약품 등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술 성과 확보와 공동 개발을 지원해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나 우대제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10주년 맞은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하는 삼성의 대표 CSR 사업이다. 왼쪽 세번째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 차관,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시스

# 삼성전자, '칩 脫퀄컴' 신호탄 갤S26에 엑시노스2600 탑재

**성능 저하·수율 문제 동시에 개선**
**원가절감 효과로 수익성 향상 기대**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엑시노스2600의 갤럭시S26 시리즈 탑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엑시노스의 성능 논란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칩에 의존했던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엑시노스2600 개발을 마무리하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6 시리즈 탑재를 위해 오는 11월 양산 공급을 시작한다. 최상위 라인업인 울트라 모델에도 4년 만에 자체 AP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지적됐던 성능 저하와 수율 문제를 동시에 개선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가 양산하는 자체 모바일AP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결정짓는다.

삼성전자 내부테스트 결과 엑시노스2600은 최신 애플 모바일 AP 'A19프로'와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AI)구현에 필요한 신경망처리장치(NPU) 성능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엑시노스2600으로 추정되는 AP의 성능은 싱글코어 3309점, 멀티모어 1만125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작 대비 약 30% 이상 점수가 향상된 수치다.

엑시노스26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최신 2nm(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 공정으로 생산되며 목표 수율의 8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3nm에서 수율을 잡지 못해 엑시노스2500이 갤럭시S25에 탑재되지 못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AP와 모델을 분리해 탑재한 점도 과감한 설계 전략 변화로 꼽힌다. 기존에는 두 부품을 통합한 SoC(시스템온칩) 방식을 고수했으나, 이번에는 모뎀을 분리하면서 확보한 공간만큼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면적을 확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연산 처리 효율과 그래픽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삼성LSI와 파운드리사업부는 올 상반기에 각각 2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엑시노스2600이 탑재되는 갤럭시S2 시리즈가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부터 수익성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 통신사, 불법기지국·해킹은폐 의혹 '도마위'

**국감장 불려간 통신사 수장들**
**여야 의원들 관리 부실 등 지적**

KT와 LG유플러스가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 기지국(펨토셀) 사태와 해킹 정황 은폐 의혹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기업 자정 요구가 쏟아졌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KT 김영섭 대표와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나란히 출석했다.

KT는 불법 펨토셀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 되레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질타를 받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2만2000여 명의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2000여 명에게 해지 위약금으로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유영상 S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개최
오늘 오후 2~5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메트로 한줄뉴스

▲민주당, 김현지 휴대전화 교체 의혹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고발
▲'최민희 딸 결혼식' 충돌 2라운드… 박정훈 "이해충돌" 최민희 "딸과 의논 못해" /사진 뉴시스
▲국힘 이인선 의원, 피해자 보호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발의
▲국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구성… 위원장에 장동혁 대표
▲한정애 "서울시민 혈세 낭비 않도록 한강버스 의혹 진상규명할 것"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사무차장 면담… "한·나토 파트너십 더욱 강화"

# “2026년 재도약 원년… G마켓, 국내 1등 오픈마켓 오를 것”

**현장르포**

## G마켓 미디어데이

**셀러지원 등 연간 총 7000억 투자**
**셀러 부담 ‘할인쿠폰 수수료’ 폐지**
**컨설턴트 100여명 중소셀러 지원**
**신세계·알라바바와 역직구 활성화**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대표가 현장에서 G마켓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G마켓

G마켓이 국내 오픈마켓 1위탈환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새 수장으로 취임한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대표는 21일 미디어데이를 갖고 ‘글로벌-로컬 마켓(Global-Local Market)’이라는 새 비전을 발표하며, 5년 내 거래액(GMV)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85년생으로 알리바바의 동남아 플랫폼 ‘라자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장 대표는 “G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올라서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축의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G마켓은 2026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셀러 지원 5000억원 ▲고객 혜택 1000억원 ▲인공지능(AI) 기술 1000억원 등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투자를 집행한다.

**◆“셀러 부담 확 줄인다”**

‘로컬 마켓’ 전략의 핵심은 “셀러의 성장이 곧 플랫폼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판매자 수익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큰 변화는 셀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할인쿠폰 수수료’를 10월 31일부터 전격 폐지하는 것이다. G마켓 이민규 영업본부장은 “연간 500억원에 달하던 셀러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것”이라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스마일데이 같은 대형 프로모션 진행 시 발생하는 고객 할인 비용도 전액 G마켓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중소 셀러 전담 조직(AM)을 신설해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신규 셀러에게는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로 수수료’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G2 글로벌’로 200개국 역직구**

글로벌 마켓 전략은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조인트벤처(JV)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역직구 확대가 중심이다.

G마켓은 ‘G2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셀러가 해외 판매 동의만 하면 번역, 물류, CS, 세금 등 복잡한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이미 알리바바 계열의 동남아 플랫폼 ‘라자다(Lazada)’와 연동을 시작, 1억 60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동남아 5개국에서 판매에 돌입했다. 지마켓은 이를 5년 내 200여 개국으로 확대해, 역직구 부문에서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거래액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비전 실현의 핵심 동력은 AI다. 지마켓은 연간 1000억원을 AI에 투입, 알리바바의 최첨단 기술을 이식한다. G마켓 김정우 PX(Product Experience)본부장은 “알리바바의 고도화된 검색 엔진과 딥러닝, LLM 기술로 ‘나도 모르는 내 취향’까지 파악하는 초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드러운’ 같은 감각적 표현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검색을 도입하고, 챗봇, 리뷰 요약 등 4가지 AI 에이전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2027년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해 글로벌 수준의 플랫폼 경쟁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혜택에도 연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당장 다음 달 진행하는 11월 빅스마일데이 규모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리고, 이마트와 연계한 장보기 서비스도 O2O(Online to Offline) 퀵 배송을 도입하는 등 고도화한다.

장 대표는 “한국 이커머스는 상품, 품질, 서비스 등 기본기가 탄탄하지만, 해외 시장에 비해 쇼핑의 재미(Shoppertainment) 요소는 부족했다”며 “알리바바의 기술력과 신세계의 유통 노하우, G마켓이 가진 국내 셀러 기반을 결합해 ‘글로벌-로컬 마켓’ 비전을 실현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G마켓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는 공정위 승인 조건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독립 운영되며, 플랫폼 통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합작 이후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고객 정보는 G마켓이 단독 관리하며 최고 수준 보안 체계로 보호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다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등 멤버십 관련해서는 향후 계열사 간 협의를 통해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法 “매수, 시세조종이라 볼 수 없어”**
**카카오 신뢰회복·사업재편에 속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이 “단순한 대량 매수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주가조작 의혹’이 일단락되면서 카카오 경영 전반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조직적 공모의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두고 벌였던 1조 원대 인수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엔터의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카카오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SM 주가는 단기간에 15만 원을 돌파했다. 검찰은 이를 ‘의도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매수 행위의 영향만으로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핵심 증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스피커폰 통화로 공모를 들었다는 진술은 비현실적이며, 진술 동기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졌던 주가조작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경영과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의 기업 신뢰 회복과 신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카카오는 AI·핀테크·모빌리티 등 핵심 성장축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최근 생성형 AI 기반 챗봇을 카카오톡에 도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금융·스테이블코인·모빌리티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판결은 경영 리스크 해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카카오가 다시 ‘혁신기업’의 본래 궤도로 복귀할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안정화와 투자 심리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민중기 특검, 공소시효 완성 재조사 어려워”

## 금감원 국감

**이찬진 “살펴볼 부분 있다면 검토”**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가 출발점**
**성과지표 체계 전면적 손볼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열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새 금감원장의 방향 선언과 동시에, 조직 운영·개인 논란이 한꺼번에 부각된 자리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성과 중심의 금융 문화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국감장은 곧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GA(보험대리점) 보안 취약 문제,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논란 등 각종 현안 질의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중기 특검 의혹, 공소시효 지나”… 다주택 논란엔 “한두 달 내 정리”**

여야 공방은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 특검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억대 이익을 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고, 이양수 의원은 “당시 금감원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2010년 금감원이 조사해 13명을 고발·통보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15년 전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소환하는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원장 개인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권에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라 하면서 본인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두 채 모두 가족이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로 일반적인 수준의 주택”이라며 “창고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송구하다”며 “재산신고 기한(10월 말)에 맞춰 정리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주의 구조 개혁…GA 제도권 편입 추진”**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성과지표(KPI) 체계를 전면 손보고, 단기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를 장기성과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즉각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불완전판매와 무리한 영업이 반복된다”며 “경영진의 평가와 책임을 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출범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GA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정보보안 취약성은 심각하다”며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를 제도권에 편입, 정보보호·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KT 소액결제 피해, 스스로 조치해야”

›› 1면 ‘통신3사, 불법기지국…’서 계속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법률 검토는 조사 완결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KT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이며 사실상 자발적 배상을 촉구했다.

KT의 장비 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 중 25%인 1만985대가 분실 처리됐으며 회수된 장비는 8190대(18.8%)에 불과했다. 서울의 회수율은 10.8%, 경기도는 12.7%로 저조했다.

KT는 “방문 동의 확보가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회수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발견된 서버를 신고하지 않고 포맷했다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KISA에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뒤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K-방산, '100억弗 수출' 장전… '공급망·신뢰' 탄약 채워야

## '4대 방산강국' 도약

### 전차 등 첨단무기 공급국 자리매김
### '신속납기·합리적 가격·고성능' 주효
###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해야"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FA-50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천궁-II 지대공 유도무기 /LIG넥스원

수출 100억달러 돌파가 가시화되며 'K-방산'이 한국 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부상했다.정부와 업계는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투자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술력 못지않게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완성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약 69억달러로 전년 동기(55억달러)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하반기 추가 계약을 감안하면 연간 100억달러 돌파는 무난할 예정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6~2020년까지 30억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2021년 73억달러, 2022년 173억달러로 급등했다. 이후 다소 조정기를 거쳐 지난해 100억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급성장은 국제 정세 변화와 맞물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확대 등으로 각국이 전력 증강에 나서며 방산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은 '신속 납기·합리적 가격·검증된 성능' 3박자를 앞세워 시장을 넓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로 유럽·중동을 공략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전투기 수출로 동남아 시장을 확대했다. LIG넥스원과 현대로템도 미사일·전차 체계 수출로 '4대 축'을 형성했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차·자주포·전투기·미사일 등 5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금융보증, 전시회 참가, 수출입은행 지원 등을 병행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무기 수입국'이던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공급국'으로 위상을 바꿨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택하면서 방산 강국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방산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K-방산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R&D만큼 신뢰기반인 세일즈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산이 내수를 넘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산 인력 부족, 부품 공급망 불안, 해외 서비스망 미비 등이 발생 할 경우 신뢰가 흔들려 수주가 끊기 가능성이 높다.

방산 전문가는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R&D·세일즈·신뢰의 삼박자가 맞춰질 때 K-방산의 다음 단계가 열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세일즈' 출국길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제조기업 68% "韓·中 기술격차 사라져"

### 상의 韓·中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
### 제조속도 등 제조업 격차 축소 응답
###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 제안

'대륙의 실수'라 불리던 중국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제조업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과 생산 속도에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인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370곳 중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은 32.4%에 불과했다. '기술 차이가 없다'는 답이 45.4%, '중국이 앞선다'는 응답은 22.2%로 조사됐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응답이 89.6%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7.2%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가격 경쟁력은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했으며,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이 53%로 과반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에서 중국산이 특히 저렴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중국산은 한국산 대비 메모리 반도체 65%, 리튬이온 배터리 73%, 철강(후판) 87%, 면 소재 섬유·의류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앞섰다. '중국이 더 빠르다'는 응답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중국은 유연한 규제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이런 격차가 이어질 경우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69.2%)은 '향후 3년 내 중국 산업 성장으로 한국산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한·중 기술 역전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한국의 역진적 세제 구조를 지목했다. 중국은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한국은 세액공제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대기업 15%에 불과하며, 연구개발비 공제율도 대기업 2%로 낮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직접 투자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펀드 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로 미래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은 'N분의 1식 지원'이 아닌 '몰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력 확보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기후위기 속 농업 대전환… 유통혁신·K-푸드로 미래 연다

## K-퍼블릭 탐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가 국민 먹거리 안정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지방소멸에 맞서 '7대 농업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행보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편집자주〉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내부 혁신을 위한 조직·경영분과 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문표(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8월25일 전북 남원에서 배추 신품종 '하라듀'의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aT

aT는 '5100만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라 자부한다. 지난해 9월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신설하고 농업 전반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 위기 진단을 거쳐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7대 혁신방향을 사업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즉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거점별 광역화) ▲유통구조 개선(온라인도매시장·직거래장터) ▲쌀 중심 식량구조의 다곡화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구축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통한 식품영토 확장이다. aT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기술개선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신품종 개발 통한 여름철 안정 생산**

신품종 개발과 재배적지 확대는 공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하라듀' 배추 신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름(하)과 영어의 내구성을 결합한 이름의 하라듀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10~15일 빠르고 더위 견딤성과 조기 결구력이 우수하다. 현재 강원 평창·정선을 비롯해 전북 남원, 전남 해남·화순 등 8개 지역에서 총 400톤(t) 규모의 시범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고랭지 중심의 재배 체계를 준고랭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달 23일 전남 나주에서 막을 올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기후변화 대응 준고랭지 신품종 여름배추 육성지원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하라듀 배추로 담근 김치의 시식·평가가 진행되며, 소비자와 농업 관계자가 함께 기후적응형 신품종의 우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신품종 개발 통한 생산안정**
**준고랭지 재배 확대 추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급증**
**농가소득 개선·체질 변화**

**◆'유통비용 절감' 온라인도매시장 급성장**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거래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aT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유통비용이 7.5% 감소하고 농가 수취가격이 3.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산지 직수집이 활성화되며 도매시장 수수료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거래정보 고도화, 거래방식 다양화,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디지털 유통혁신 2.0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혁신 위한 전문가 자문강화**

aT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7대 혁신의 핵심분야 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 9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1월에는 급식 분야 공청회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aT 혁신자문위원회(정부·학계·언론·현장전문가 28명)가 꾸려져 기후변화 시대 공사의 역할 및 실행전략 논의에 한창이다.

**◆K-푸드 세계화로 한국 식품영토 확장**

K-푸드의 세계화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29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일 앞당긴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다.

미국(+15.3%), 유럽(+15.8%↑), 걸프협력회의(GCC·+9.6%), CIS(독립국가연합·+5.6%)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김·김치·포도·소스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K-푸드 수출 100억弗 돌파**
**할랄한우 중동시장 진출**
**라면·김치 등 품목 다변화**
**식품영토 확장·성장가속**

공사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운송비·시설자금 지원, 환변동보험 완화 등 실질적 수출지원책을 실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한우를 비롯해 베트남 참외 수출 등 검역 해소 활동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드라마·콘서트·영화제 등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시식행사에서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할랄인증 한우로 중동진출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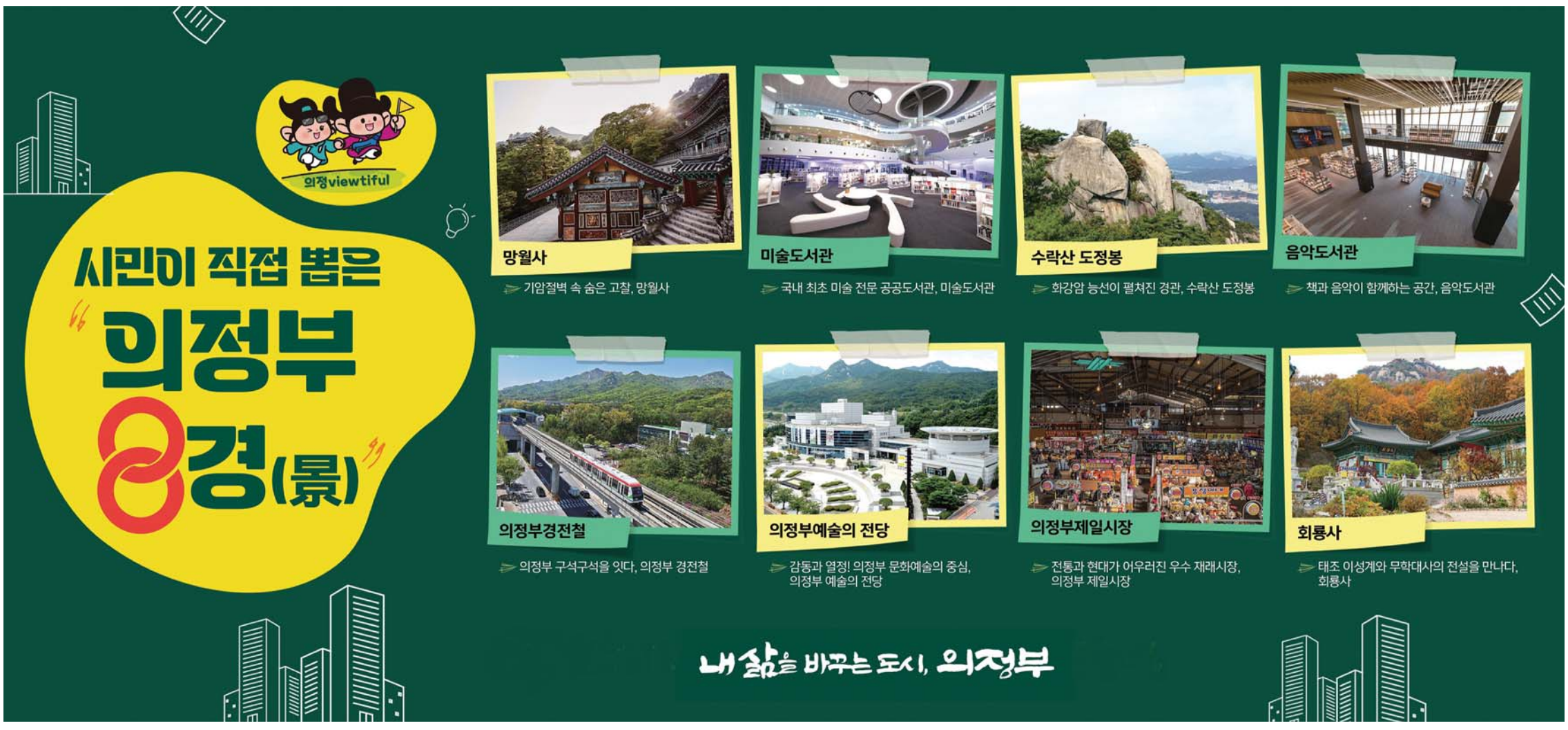
최근 UAE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프리미엄 축산물 수출의 새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aT는 UAE와의 검역·위생 협상 지원 및 현지 대응을 통해 지난달 UAE 정부의 최종 등록 승인(횡성케이씨 할랄도축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한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등록 효력은 내년 9월10일까지 유지된다.

aT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왔고, 두바이 지사를 중심으로 UAE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두바이 K-푸드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 및 유통에서의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식량주권 확보와 식품영토 확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PEC 2025 KOREA

APEC CEO SUMMIT KOREA 2025

# 이 길에서

# 세계 경제의 내일이 시작됩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경주에
혁신의 키를 쥔 리더들이 모여

**Bridge**
협력의 다리를 놓고,

**Business**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Beyond**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APEC CEO SUMMIT KOREA 2025**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SK도 노력하겠습니다**

SK

*사적 제457호 경주 월정교

APEC CEO SUMMIT
**Main Program**
2025.10. 28 – 10. 31
• 환영만찬 : 경주 화랑 마을
• 본 행사 : 경주 예술의전당

APEC CEO SUMMIT
**Future-Tech Forum**
2025.10. 27 – 10. 30
• 경주 엑스포 대공원(AI 세션 외)
• 국립경주박물관(방산 세션 외) 등

APEC CEO SUMMIT
**K-Tech Showcase**
2025.10. 28 – 10. 31
• 경주 엑스포 대공원

SK가 함께하는
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 보세요

# “국민우려 불식·공급대책 논의” vs “부동산 정책 정상화”

〈與〉 〈野〉

**與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
**10·15 선동 도 넘어… 의견수렴 행보**

**野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꾸려**
**반시장·비정상적 정책 적극 대응**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적용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시스

여야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 이후 자체 부동산TF(태스크포스)와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지원TF(태스크포스)’로,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란 이름으로 관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는 등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TF 구성 안건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했다”며 “TF에선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고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보유세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고 보유세 관련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배포한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가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 재선 이상 국회의원 및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정책위의장이 맡는 것과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계속되는 ‘김현지’ 논란… 김동연 “중차대한 국감서 무슨 의미 있나”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9일차**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서 의혹 재등장**
**김동연 “오래전 퇴직한 공무원일 뿐”**

**법사위, 판사들에 동행명령장 발부**
**野 “개인적인 일로 발부 사례… 유감”**

국정감사가 9일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논란의 인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재등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실장이 경기도청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의혹이 있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무산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를 틀으며 “선거 개입 아닌가. 저걸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 철벽 방어로 막혔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며 “오래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보도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를 전혀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이 무엇이고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장을 낼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사로서 군의 직원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비통스럽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일 여야 위원들이 격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음주소동’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제주의 부장판사 3명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李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행사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해외자원 개발에 ‘자본잠식·혈세낭비’ 비판

**산자위 국정감사**

**‘지속가능 모델 구축’ 필요 목소리**
**수익보다 손실 더 커… 공기업 위협**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관련 공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 관련 공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조8600억원이나 회수한 금액은 15조2000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를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는 캐나다 당국이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결국 하베스트의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꼴이 됐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한쪽 어깨가 젖어가도
국민을 위한 우산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 곁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평온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뛰고 있는
/3만 명의 경찰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찰의 날 80주년**
그 변함없는 헌신을 기억하며
KB금융그룹과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10월 21일은 경찰관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경찰의 날'입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KB 금융그룹

# "내년 보험산업,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가 관건"

##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제
### 완만한 금리하락, 수익성 부담
### 자본·부채관리 등 경영효율 핵심
### IFRS17 이후 지출구조 점검 필요
### 안철경 원장 "산업 재균형 절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의 과제는 위기를 넘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21일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AI·고령사회·지속가능성·생산적 금융의 흐름 속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원장은 "성장과 안정, 혁신과 신뢰, 효율과 포용이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한 토대가 마련된다"며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변화와 순응의 지혜를 압축한 표현) 처럼 지금은 산업의 균형점을 다시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2026년을 '저성장 속 수익성 부담이 본격화되는 해'로 규정했다. 완만한 금리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수익성·건전성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의 본격화, 완만한 금리 인하(하락폭 제한), 환율 안정 등 거시 변수의 복합영향을 짚고 보험료 2.3%(생보 1.0%, 손보 3.5%) 상승 전망을 제시했다. 생보는 저축성·변액보험 축소 속 보장성 중심, 손보는 장기손보 둔화와 자동차 저성장 지속이 성장률을 제한하는 구조다. 총 시장은 약 265조원으로 추산됐다.

초회보험료 흐름도 병행 제시했다. 2026년 산업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0.7%로 전망됐다. 생보는 저축성 신규판매 둔화로 -0.9%, 반면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질병·상해 중심으로 4.8%가 예상됐다. IFRS17(보험 회계기준) 이후 보장성 집중이 심화됐고 자동차는 보험료 인하 누적·비용 상승 영향으로 손해율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수익성과 건전성의 압력 포인트도 제시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율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생보 3.7%→-0.6%, 손보 7.0%→2.1%로 둔화가 불가피하다. 금리 100bp 하락 시 K-ICS(지급여력비율)가 생보 평균 12.5%p·손보 9.1%p 하락하는 민감도 확대가 확인됐다. 완만한 금리 하락 국면일수록 요구자본 관리가 핵심이란 평가다.

황인창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건전성, 수익성, 성장성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전성과 수익성 저하는 위험보장역량과 미래대응여력을 감소시켜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장은 경영 3대 과제로 ▲적극적 부채관리 ▲자산운용 고도화 ▲비용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적극적 부채관리로 상품 개발·판매 단계부터 자본부담을 내재화하고 보유계약은 회사 간 계약이전을 통해 건전성·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감독법규에 근거해 이전 심사 기준·제한 요건도 짚어 비핵심 포트폴리오 재편의 실무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운용 고도화로 자산집약적 재보험(AIR)과 파생상품을 병행해 '자본관리+수익률' 제고를 제안했다. AIR은 역외 재보험사를 활용해 K-ICS 관리와 수익률을 동시에 노릴 수 있고 파생상품은 금리 위험 헤지와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목적에서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CSM 확보 유인으로 사업비 집행이 커진 만큼 대면채널 중심 지출 구조와 기타사업비 비중을 점검해 지출 합리화 추진을 강조했다. 과도한 설계사·GA 수수료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규율 강화도 주문했다.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장은 "보험사 간 계약이전을 활용해 재무건전성 개선, 리스크 분산, 운영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영업 효율성과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토스뱅크
## 예비부모 아이미래 준비
## 최고 연 5.0% 태아적금

토스뱅크는 21일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를 위한 '태아적금'을 출시했다.

'태아적금'은 임신 단계부터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출산 후 자녀 명의의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최고 연 5.0%(세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1.0%, 우대금리는 연 4.0%포인트(p)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태아적금 만기 전일까지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태아적금은 부모 한 명만 가입 및 저축할 수 있으며, 초대된 가족 구성원은 임신 주차별 안내와 성장 그래픽 등 아이의 발달 과정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태아적금과 아이통장을 동일한 보호자가 개설해야 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서류 준비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아이의 첫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7조 적자' 새마을금고 회장 선거, 건전성 관리가 '잣대'

## 부실 정리 vs 변화, 선택의 기로
## 김인 회장 재선도전 여부도 주목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회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차기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 능력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14일 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17일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은 11월 4일로, 이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투표권자로 참여한다.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박차훈 전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제19대 회장직에 올랐다.

본래 회장직의 임기는 4년이나 보궐선거 시행으로 박 전 회장의 잔여 임기 2년을 부여받았다. 회장직을 수행한 기간이 짧은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김 회장은 당선 직후 '공약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중앙회 이사 3인과 금고 이사장 10인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회장 공약 이행 계획을 심의 및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올해 상반기 3조 8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가 하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부실채권 정리 업무 역시 본격화했다. 또, 이달에는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비전2030 위원회'도 발족했다.

업계에선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실적 악화 및 건전성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약 1조7382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역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각각 1.74%포인트(p), 0.43%p씩 상승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실 금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제20대 새마을금고 회장직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건전성 관리 리더십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이관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자산건전성 관리·감독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현재 하마평에는 김인 회장 외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유재춘 서울축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때에도 후보로 등록해 현 김인 회장과 함께 선거 레이스를 치른 경험이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한화손해보험
## 여성 운전자 복귀 응원
## 면허정비소 캠페인 진행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1월 9일까지 면허는 있으나 각기 다른 이유로 운전을 하지 않는 여성 운전자의 운전 복귀를 응원하고 재도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면허정비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러 환경 및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운전대와 멀어진 여성들이 많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 한화손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시작과 도전을 꾸준히 응원해온 만큼 최근 캐롯손보와의 합병을 계기로 여성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캠페인 지원 대상은 ▲육아로 인해 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여성 ▲커리어 확장을 위해 운전을 하고 싶은 여성 ▲여가와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여성 ▲사고 트라우마로 운전을 중단했던 여성 등 운전을 다시 하고 싶거나 면허 취득 후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이다. 사연은 본인뿐 아니라 이들을 응원하는 가족·친구·지인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유진 한화손보 마케팅실 팀장은 "이번 캠페인은 캐롯 합병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화손보의 브랜드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과 웰니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 서울 잠원동 '나홀로 5곳' 뭉친다… 통합 재건축 시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나홀로' 아파트 단지 5곳이 통합재건축 추진을 검토 중이다. 당초 리모델링을 논의했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데다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다.

여러 단지를 통합할 경우 갈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게 보통이지만 인근에서 통합 재건축으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고, 일명 '재건축의 신'이라 불리는 한형기 전 조합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한 전 조합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킴스빌리지·한신타워·중앙하이츠(A, B)·블루힐하우스 등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열린 통합정비사업 설명회에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단독 추진은 과도한 부담금과 사업 후 가격 약세, 인허가 난해 등 많은 악조건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통합 재건축시 700세대 이상, 최고 49층에 한강조망도 가능해 최소 평당 1억6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조합장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과 래미안 원베일리 부조합장을 지냈다. 특히 원베일리의 경우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 우정에쉐르, 신반포23차, 경남상가 등 5곳을 통합해 진행했지만 재건축으로는 최단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설립 후 7년 11개월 만에 입주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평당 2억원 안팎의 국내 최고가 아파트다.

킴스빌리지·한신타워·중앙하이츠(A, B)·블루힐하우스 5개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잠원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입지는 좋지만 모두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만큼 용적률이 높고, 단지 규모가 1~2개 동으로 적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ES 2025(한국전자전) 삼성전자관에서 관람객들이 '마이크로 RGB TV'의 화질과 색 재현력, 명암 표현력 등을 경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람객들이 LG전자 부스에서 LED 사이니지와 거울을 활용해 만든 88개 정육면체 모듈이 다채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연출하는 '키네틱(Kinetic·움직이는) LED'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 삼성·LG, '생활 속 AI' 패권 경쟁
# 가전·디스플레이·로봇 혁신 공개

**'KES 2025'서 AI 기술 선봬**
**삼성 마이크로RGB TV 첫 공개**
**무빙스크린·AI홈으로 일상혁신**
**LG 공감지능 기반 AI 갤러리 운영**
**로봇·마이크로LED로 미래 제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56회 한국전자전(KES 2025)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제품·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KES 2025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KES2025에 주거부터 교육,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최신 AI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집과 교실, 매장 등 실제 생활환경을 테마로 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삼성전자의 최신 모바일·디스플레이·가전 등 AI 제품과 기술로 각 공간별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구현했다. 특히 전시관 입구에는 대형 LED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구성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어 디스플레이 특화 전시 공간을 배치해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RGB TV'의 탁월한 화질과 색 재현력, 명암 표현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도 전시된다. 무빙스타일은 사용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디스플레이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제품 색상 ▲스탠드 타입 등 다양한 옵션을 갖춰 202가지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

관람객들은 거실·주방·침실 등 집을 테마로 구현된 전시공간에서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연결된 다양한 전자제품이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쉽고 편리하게 혁신하는 'AI 홈'을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AI)으로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는 미래 일상을 제안한다. 'LG AI 갤러리'를 테마로 한 900제곱미터(m2) 규모의 전시관에서 공감지능이 적용된 혁신 제품과 기술을 공개한다.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슈필라움'에서는 차량이 이동 수단을 넘어 업무 공간, 팝업 매장 등으로 변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AI 홈 허브 'LG 씽큐 온'과 연동돼 탑승객이 "하이 엘지, 다음 스케줄 알려줘"라고 말하면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스케줄 시간과 위치를 안내한다.

전시장에는 136형 'LG 매그니트 액티브 마이크로 LED'가 몰입감 넘치는 초대형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중 픽셀을 개별 제어하는 능동형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섬세한 초고화질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연내 출시 예정인 청소 로봇 신제품인 빌트인형 '히든 스테이션'과 프리스탠딩형 '오브제 스테이션' 2종을 국내에서 처음 전시한다. '히든 스테이션'을 싱크대 걸레받이 부분에 설치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이 보이지 않아 깔끔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정기선, APEC 포럼서 AI·탈탄소 전략 제시

〈HD현대 회장〉

APEC CEO 서밋 공식행사
미래 조선 혁신 전략 발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지난 6월 24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HD현대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HD현대는 경북 경주에서 오는 27~30일 APEC CEO 서밋의 부대행사로 '퓨처 테크 포럼: 조선'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정 회장은 연설에서 인공지능(AI)·탈탄소·제조 혁신 등 HD현대의 미래 조선 기술과 방산 중심 글로벌 협력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퓨처 테크 포럼은 글로벌 대표 기업과 정부·기관, 학계가 모여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HD현대는 첫 기업 세션을 맡으며 APEC CEO 서밋 공식 후원사로도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선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다(Shaping the Future of Shipbuilding)'를 주제로 조선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기술 혁신이 논의된다. HD현대의 주요 파트너인 헌팅턴 잉걸스, 안두릴, 미국선급(ABS), 지멘스, 페르소나 AI 등 주요 인사들도 연사로 참여한다.

세션은 ▲해양 방위의 새로운 시대 ▲조선 산업의 현재와 미래 ▲조선소의 미래: AI 기반 제조 혁신 ▲조선 분야 한·미 전략적 협력 등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조선 산업의 혁신과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조선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조선업의 중심 기업으로서 산업 발전을 위한 통찰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 "기술 리더십으로 ESS 영향력 확대"

이석희 SK온 CEO 연세대서 특강
ESS 확장·안전성 비전 제시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서도 안전성을 앞세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K온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IBK홀에서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CEO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석희 CEO는 ▲전기차 배터리 및 ESS 시장 전망 ▲SK온 기술 경쟁력 ▲미래 성장 전략 등을 주제로 중장기 ESS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CEO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ESS 수요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ESS 사업은 전기차에 이은 중요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 고안전·고효율 솔루션 ▲고객 맞춤형 통합 모듈 설계 ▲화재 조기 진압 솔루션 등 ESS 사업 주요 전략을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북미 등 글로벌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K온이 강점을 보유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Z-폴딩(Z-folding) 기술이 대표적인 안전성 차별화 요소로 소개됐다. 이 CEO는 BMS와 관련해 "SK온은 배터리 특성과 상태에 기반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진단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과 기능 안전성 수준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K온의 BMS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국제 사이버보안 인증(CSA)을 획득했으며 기능안전관리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확보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리퍼비시 부재로 반도체 소부장 R&D 단절

**테스트베드 막힌 소부장 현실**
**구형 장비 활용 기반 부재**
**리퍼비시 제도화 과제로 부상**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공정 검증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신소재와 신장비를 시험할 테스트베드가 부족해 연구·개발(R&D)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재사용 가능한 구형 장비를 재투입하는 리퍼비시(중고 재제조) 체계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경쟁국에 비해 미비한 상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R&D 생태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응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86.2%가 "공정 테스트 장비 접근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공정 검증에 활용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 팹의 장비 사양과 대기기간 한계도 뚜렷하다. 이에 일부 기업은 신소재 시험에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연구 과제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베드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는 리퍼비시 장비의 재활용이 꼽힌다. 구형 장비를 정비·보수해 재투입하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공정 검증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리퍼비시는 단순한 재활용 개념을 넘어, 과거 공정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산업 유산'으로 평가된다. 구형 장비를 유지·운영하면 중소기업이 신소재나 부품을 시험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데이터와 공정지식을 국내에 남길 수 있어, 기술 전이와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기업이 중고 장비를 수리·유통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활용 가능한 장비가 수출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증 가능한 장비가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리퍼비시 산업을 공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이후 '장비 재활용·개조(Equipment Reuse·Retrofit)'를 공급망 지원 항목으로 명문화했다. 미 상무부 전략보고서에는 "정부 지원은 장비 재활용과 개조 활동에도 제공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NIST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커먼즈(MicroelectronicsCommons)' 사업에서는 리퍼 장비를 활용한 파일럿 라인 운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리퍼비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미흡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 KAI, KF-21 수출 확대위한 협력 강화

한화·LIG넥스원과 MOU 체결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국내 주요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국내 주요 방산기업 3개사와 함께 KF-21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KAI는 방산 3사와 2025 ADEX(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협력 분야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사는 ▲글로벌 수준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원가절감 방안 공유협력 ▲공동 수출 마케팅 및 산업협력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기술, 시장정보 공유 ▲기술·시장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기반 협력 강화 등 KF-21 수출을 위한 실질적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F-21은 대한민국 최초의 4.5세대 국산 전투기로 최초 수출이 성사될 경우 국가 항공방위산업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요 협력사 간 긴밀한 공조가 수출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인텔리안테크, 해상 솔루션 대거 시연… "안전 항해 실현"

**코마린 2025**

**C700·C200M 시스템 등 전시**
**극지방 포함 전세계 통신 서비스**
**성상엽 대표 "글로벌 시장 이끌 것"**

선박 위성 안테나 부문 전 세계 1위인 인텔리안테크가 항해, 조타, 안전 등에 필요한 선박 디지털 토털 장비·솔루션 분야 글로벌 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던졌다. 사실상 유럽, 일본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K-조선'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새로운 포부를 밝히면서다. '토종기업' 인텔리안테크가 전 세계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첫 작품은 이리듐(Iridium)의 저궤도(LEO)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해상 조난 및 안전 통신 서비스'(GMDSS)를 제공하는 C700과 C200M 시스템이다.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글로벌 해상 필수 안전 장비로, 300톤(t) 이상이거나 승선인원 250명 이상인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선박은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5만척이 있다.

성상엽 인텔리안테크 대표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코마린 2025(KORMARINE 2025)'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특히 인텔리안테크가 3년 가량의 기간을 들여 개발·출시한 C700, C200M은 국내 GMDSS 제품 최초로 유럽연합(EU)의 선박 장비 인증인 'MED(Marine Equipment Directive) Wheelmark(휠마크)'를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

성상엽 인텔리안테크 대표(사진)는 조선·해양 산업 전문 전시회인 '코마린 2025(KORMARINE 2025)' 개막 첫 날인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선박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는 장비를 국제 인증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종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시에 위성통신 단말기나 안테나 사업을 주로 영위하던 회사가 해상용 전자 디지털 장비 및 솔루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선박의 조타실에 들어가는 레이더, 전자해도, 어군탐지기, 블랙박스 등 연간 5조~6조원 가량의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대표는 "첫 제품에 이어 내년 2월에는 패키지도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추가로 구성해 수년간 GMDSS 제품으로만 1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 안에 기존 해상용 제품과 디지털 장비를 포함해 총 3000억~400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리안테크는 지난해엔 2578억원을 매출을 올렸다.

2004년 설립한 인텔리안테크는 글로벌 위성 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회사로, 해상용 위성통신을 포함해 이동형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 분야에서 당당히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사가 이번 '코마린 2025'에서 선보인 C700, C200M은 극지방을 포함한 전 세계 해상에서 조난 발생시 끊김 없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성 대표는 "새로 선보인 시스템은 조난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했고 원터치 조난 경보, 긴급 음성 통화, 해상 안전 정보(MSI) 제공 등의 기능을 통해 해상구조센터와 즉각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해상 조난 안전 통신 뿐만 아니라 ▲선박 보안 경보 시스템(SSAS)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시스템(LRIT) ▲상용추적시스템(Commercial Tracking)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텔리안테크의 제품들은 비상 통신 외에 상용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한다.

/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벤처 재직자 10명 중 7명 "충분한 보상시 52시간 초과 근무"

**벤처기업협회 인식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61% 조직문화·근무환경 만족**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0명 중 6명은 조직문화,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미흡한 재정적 보상 ▲체계적이지 않은 조직 ▲불안정한 조직 비전 등은 벤처기업의 단점으로 꼽혔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벤처기업 재직자 2141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2%는 현재 다니고 있는 벤처기업의 조직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율적인 업무 수행 환경'(34.3%), '자유로운 소통 환경'(29.1%) 등을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불만족'은 9.8%에 그친 가운데 주로 '비효율적 협업 및 정보 공유체계'(30.7%), '불투명한 성과 인정 방식'(30.1%) 등이 불만이었다.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62.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적절한 근로시간과 우수한 워라밸'(37.6%), '적정한 업무 부담과 안정적인 직무 강도'(26.7%)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근무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평가는 7.2%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48.5%는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천하지 않겠다'는 15.2%였다. 이직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연봉 및 보상 수준(36.1%) ▲기업 성장 가능성(18.9%)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14.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창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35.9%가 '있다'고 밝혔다. 직급 중에선 '부장 이상'이 45.8%로 가장 많았고, 대리도 29.8%로 적지 않았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선 보상을 전제로 70.4%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기획'(81.2%), '연구·개발'(80%) 등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재직자들이 생각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은 ▲혁신적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한다(47.8%) ▲창의적이다(40.4%)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한다(35.8%) 순으로 많았다.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한 장점으로는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40.6%)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23.6%) ▲유연한 근로시간 및 워라밸 보장(15.1%) 등을 주로 꼽았다.

/김승호 기자

**삼성중공업**
## 자율항해 시스템 TQ 인증

삼성중공업이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해양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해 선박 디지털 솔루션 기술 인증을 획득, 글로벌 경쟁력을 드러낸다.

삼성중공업은 21일 일본 NK 선급으로부터 자율항해 시스템 'SAS(Samsung Autonomous Ship)'의 TQ(Technology Qualification)를 받았다. TQ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기술 자격 인증이다. 획득 제품은 국제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시장 내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일본 선급으로부터 자율항해시스템 기술 자격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선박 유지보수 솔루션 'SCBM(Samsung Condition Based Maintenance)'은 미국 ABS 선급으로부터 Smart MHM (Machinery Health Monitoring) Tier2 제품설계 평가승인(PDA)을 받았다. SCBM의 제품설계 평가승인에 따라 ▲선박 내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AI 기반 이상 신호 자동 감지 및 고장 진단 ▲데이터 기반 예측 정비 기능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2일에는 업계 최초로 '표면파 통신을 이용한 선박 화재감지시스템(F&G Detection System)'의 기본 인증(AiP)을 미국 선급(ABS)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스웨덴의 '컨실리움'과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금속을 매개로 신호를 전달하는 표면파 기술을 활용한다. 선박 내 복잡한 유선 환경을 무선으로 전환해 공정 효율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실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부사장)은 "선박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디지털솔루션이 곧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삼성중공업이 스마트선박 기술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 도심·오프로드 어디든 오픈-에어링… "가을바람 맞으며 달리세요"

YG의 카톡 car talk

**지프 랭글러 '41 에디션**

**90㎞ 이상에서도 파워탑 2열까지 개폐**

지프 랭글러는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마니아들의 '드림카'다.

올해 국내 첫 스페셜 에디션으로 내놓은 랭글러 '41 에디션은 루비콘 파워탑 4도어 모델로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즐기기에 안성맞춤었이다.

우선 차량에 탑승하면 주변 차량들이 내려다 보여 일반 SUV 보다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덕분에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어 운전의 피로도도 크지 않다.

도심 속에서는 2륜구동으로 설정해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경험했다. 차체는 높지만 흔들림이 없어 장거리 주행에도 2열 탑승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특히 산길 와인딩 구간에서의 고속 주행에도 쏠림 현상은 크지 않고 차체 균형감이 한층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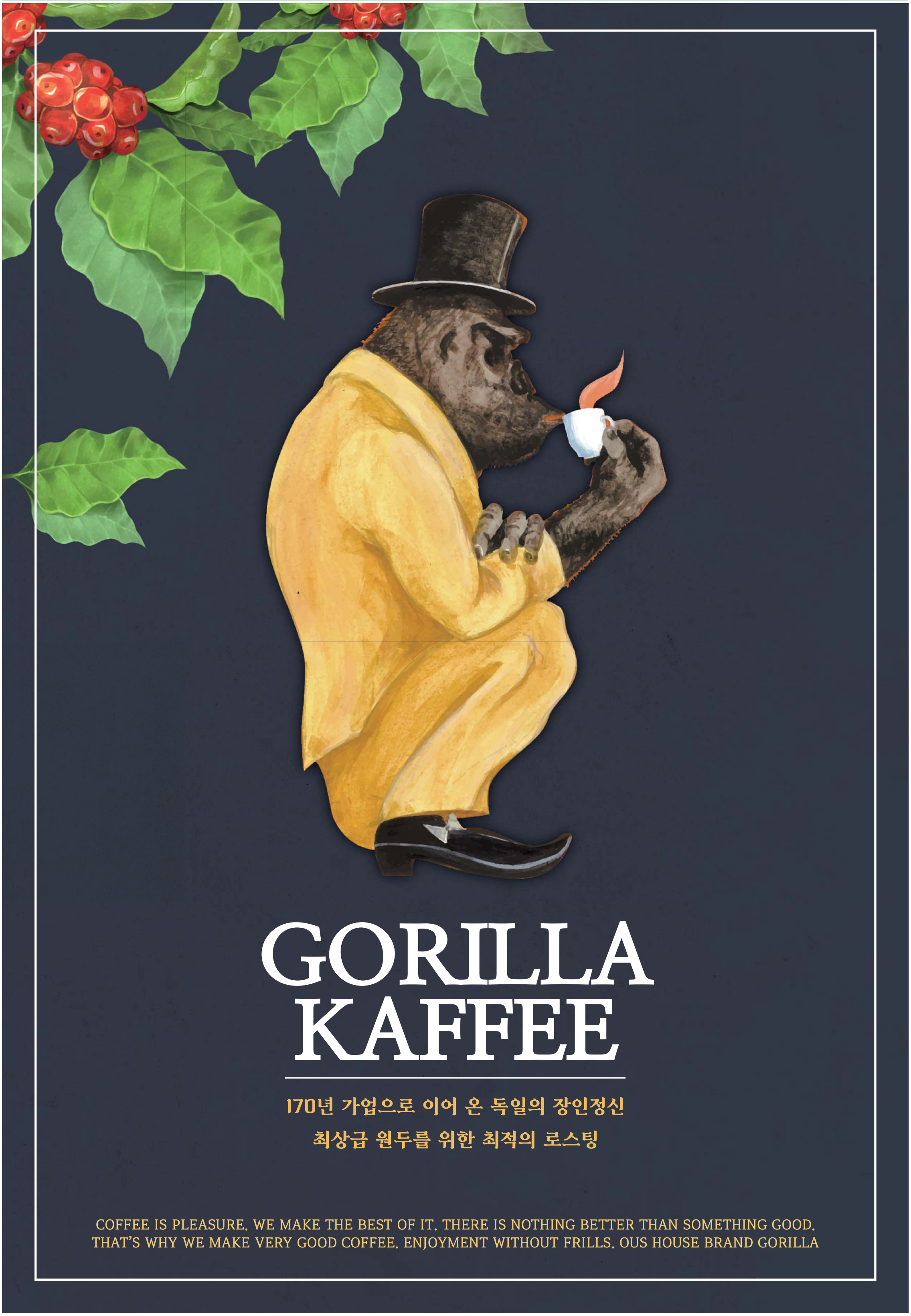
지프 랭글러 '41 에디션.

'41 에디션은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됐다. 최고출력 272마력과 최대토크 40.8kg·m의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저단 기어로 험난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한다. 2.72:1 셀렉-트랙 풀타임 4WD 시스템으로 악천후 속에서도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또 오프로드 주행 시 4-LO 모드에서 목표 속도(1~8km/h)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셀렉-스피드 컨트롤 기능을 탑재했다.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파워탑이다.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길을 주행하면서도 2열까지 덮고 있는 뚜껑 전체를 열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최고 시속 96㎞에서도 2열까지 완전 개폐가 가능해 어디서든 오픈-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시승중에는 시속 50㎞에서 진행했다. 시원한 바람과 햇살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또 지프 랭글러는 거칠고 조작이 불편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12.3인치 터치스크린과 애플 카플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으며 앞차 간격, 설정 속력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적용했다.

다만 지프 랭글러를 선택하면 공인 연비는 7.5km/L(복합 기준, 도심 7.1km/L 고속 8.1km/L)로 연료 효율성은 감수해야 한다. /양성운 기자 ysw@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S HOUSE BRAND GORILLA

# 6대 플랫폼과 프리미엄 파트너십… 애드테크로 성장 가속화

〈메타·구글·틱톡·네이버·카카오·쿠팡〉

## 와이즈버즈, 최대실적 달성

**광고사업·기술사업 부문으로 성장**
**플랫폼 사업자 자생력 키우는 역할**
**삼성전자 캠페인 등 성공사례 축적**

국내 디지털 광고 대행사 와이즈버즈가 애드 테크(Ad-Tech) 기술력과 국내외 톱 티어 플랫폼과의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무기로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애드이피션시를 인수하면서 해외 디스플레이 광고와 국내 검색 광고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 불경기 속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와이즈버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주요 플랫폼 6곳(메타·구글·틱톡·네이버·카카오·쿠팡)과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모두 확보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점이다. 경쟁사들이 2~4개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과 대조적이다.

최호준 와이즈버즈 대표이사(CEO)는

최호준 와이즈버즈 대표이사(CEO)가 이달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국내 1000여개지만, 모든 주요 플랫폼과 최상위 등급 파트너십을 가진 곳은 우리뿐"이라며 "각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와이즈버즈는 기아차의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 글로벌 캠페인, 삼성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국내외 캠페인, 컴투스의 미니게임천국 론칭 캠페인, 크래프톤의 유저 증대 국내외 캠페인을 맡는 등 성공 사례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와이즈버즈는 광고 전략 및 운용 대행을 수행하는 '광고사업부문'과 자체 개발한 애드 테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사업부문'을 두 축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고사업부는 LG전자, 현대차 등 대형 광고주가 글로벌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할 때 캠페인 전략과 프로모션 운영을 지원한다. 소재 기획, 타깃 분석, 성과 측정 등 디지털 캠페인 전 과정을 맡아 전략적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사업부는 회사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이다. '광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광고 서버·운영 솔루션을 제공한다. SOOP(숲, 옛 아프리카TV)는 와이즈버즈 서버를 도입한 뒤 3배 넘는 월 광고 매출 증가 실적을 만들었으며, 네이버 밴드도 광고 수익을 확대했다.

와이즈버즈는 플랫폼이 직접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광고 솔루션 '네스트 애즈 매니저(NAM)'를 개발했다. NAM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의 광고 서버 및 운영 플랫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고객사가 광고 플랫폼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M에는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적용돼 광고 반응·수익률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광고를 송출한다. 비로그인 사용자도 쿠키값과 시청 이력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을 97% 이상 정확도로 추론한다. 고객사는 SDK만 설치하면 빠르면 2주 만에 광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공식 론칭한 NAM은 데일리샷, 사람인, 블라인드, 하나투어, 자소설닷컴, 레진코믹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광고 매체로 전환시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월간활성이용자(MAU) 1000만명이 넘는 대형 서비스사들도 NAM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주류 플랫폼 데일리샷은 광고 매출 제로에서 월 7000만원 이상의 광고 매체로 성장했다.

와이즈버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타깃팅과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경우 광고 시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퇴근 후부터 잠들기 직전 시간과 주말에 광고비가 집중되도록 최적화한다.

최 CEO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나게 해주는 게 광고의 일"이라며 "제품력에 집중하는 근본주의를 잘 이뤄놓으면 애드 테크 기술로 만나야 할 제품과 서비스를 이어줄 수 있다.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는 광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애드이피션시 인수 후 양사 합산 매출은 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2% 성장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195억9300만원으로 전년 동기(117억6900만원) 대비 78억2400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작년 -6억3700만원에서 올해 25억6100만원으로 31억9800만원 늘며 흑자로 전환에 성공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넷마블, 신작3종 흥행에 '韓 게임대상' 기대

**세븐나이츠·RF 온라인 재해석**
**신규 IP 뱀피르까지 흥행 성공**

넷마블이 올해 출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 RF 온라인 넥스트, 뱀피르 등 신작 3종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주요 수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대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입증한 넷마블은 올해도 양대 마켓 정상에 오른 3개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상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올드 IP인 세븐나이츠와 RF 온라인을 트렌디한 감성으로 재해석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신규 IP 뱀피르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신구 IP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작품성과 흥행 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동일 기업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사례가 없어 실제 결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F 온라인 넥스트 대표이미지. /넷마블

지난 5월 정식 출시된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출시 7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5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를 달성했다. 원작의 감성과 핵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그래픽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해 신규 이용자와 기존 팬층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태국과 홍콩 매출 1위를 비롯해 대만 7위, 인도네시아 4위, 마카오 4위, 싱가포르 9위, 일본 21위 등 23개국에서 매출 순위 상위권에 진입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올해 3월 출시 이후 언리얼엔진5 기반의 메카닉 전투, 슈트 액션, 비행 시스템 등으로 차별화된 비주얼을 선보였다. 독자적인 우주 콘셉트 세계관을 구축해 이용자들의 호평을 얻으며 출시 6일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뱀피르는 지난 8월 출시 직후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9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를 달성하며 양대 마켓을 석권했다. 뱀파이어 콘셉트와 다크 판타지풍 중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 설정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출시 한 달여 동안 매출 1위를 유지하고 동시접속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장기 흥행 기반을 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대상을 거머쥔 넷마블이 올해는 3종의 흥행작으로 다시 한 번 시장 트렌드를 선도했다"며 "세 작품 모두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 게임대상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SK AX, 보험 보상 서비스 전 과정 자동화

**'AXA 손해보험' 금융 AX 1단계 완료**

SK AX는 'AXA(악사)손해보험의 금융 AX(인공지능 전환) 1단계 및 고객 채널 AX 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보상 서비스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사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담당자 배정, 정보 입력, 조사와 산출,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모든 절차들이 AX 기반으로 재구성됐다.

접수 단계에서는 고객 계약 사항과 담보를 자동 조회·처리하고, 보험 청구 서류는 AI-OCR(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보험금 산출 단계에서는 보험 약관과 산출 규칙을 시스템이 자동 추출해 반영하는 4세대 보험금 추산 프로세스를 적용, 업무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고객 편의성도 향상됐다. SK AX는 모바일과 PC 환경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채널 AX 플랫폼을 구축했다. 고객 상품 보유 현황과 유사 고객 통계 정보를 분석해 적합한 담보와 상품을 추천하고, 제3자 청구나 제휴 청구, 실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랫폼은 고객의 보험 서비스 이용 여정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계약 전환율·이탈률·유지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지원한다.

AXA손해보험은 앞으로 상품, 고객, 계약, 영업 채널, 파트너 등 보험 서비스 전 영역으로 AX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SKT '에이닷', MAU 1000만명 돌파

〈월간 활성이용자〉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의 월간 활성이용자(MAU)가 9월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550만 명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성과를 "에이닷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며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생태계 확장 전략'을 기반으로, 단일 앱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과 연결된 'AI 허브'로 발전시키고 있다.

MAU 1000만 달성에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와 외부 플랫폼 확장이 주효했다. SK텔레콤은 올해 6월 '노트'와 '브리핑' 베타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성을 높였으며, 출시 한 달 만에 약 100만 명의 신규 이용자를 확보했다.

8월에는 '에이닷 4.0' 업데이트를 통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AI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맥락과 기록을 분석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스스로 계획·실행하는 기능이다.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수는 한 달 새 약 100만 명 증가했다.

에이닷의 핵심 기능인 '에이닷 전화' 역시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안드로이드 버전에 통화 녹음·요약 기능을 추가하고, 같은 해 10월 iOS에도 기능을 확장했다. 지난 10월에는 'T전화'와 결합한 '에이닷 전화'를 선보였다.

/김서현 기자 se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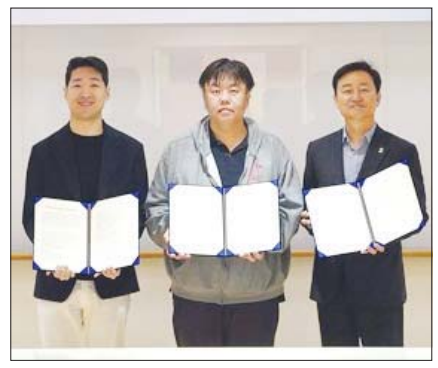
# NHN클라우드, 통합 블록체인 솔루션 구축

**아바랩스-블로코와 '맞손'**

NHN클라우드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 블록체인 MSP 기업 블로코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블록체인 솔루션 구축에 나선다.

아바랩스는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를 개발한 기업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높은 확장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솔루션과 맞춤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플랫폼 선정부터 구축, 운영, 회계 처리,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MSP 기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술 전문성 및 인력 교류 ▲데이터와 인프라



(왼쪽부터)아바랩스 저스틴 김 아시아총괄, 블로코 김원범 대표, NHN클라우드 허희도 클라우드사업본부장. /NHN클라우드

자원 공유 ▲공동 연구 및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을 연결해 기존 시스템에서도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 코스피 랠리… 5대 증권사, 3분기 영업익 24% ⬆ '신바람'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5곳 3분기 합산 영업익 추정치 1.9조**

**한국투자, 영업익 4946억 36% ⬆ 키움, 영업익·순이익 20%대 상승 예탁금 80조 넘겨 4분기 전망 '굿'**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상승세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증권사' 관련 이미지.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코스피 상승과 투자자예탁금 증가 등 자본시장 환경 개선으로 인한 업황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리레이팅(재평가)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5곳(미래에셋·삼성·키움·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 885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1조4333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1조클럽'을 달성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두드러진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946억원으로 5000억원에 근접하다. 순이익도 3948억원으로 유일하게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1%, 25.5%씩 증가했다.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NH투자증권이다. 같은 기간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2960억원, 순이익 22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57.3%, 45.% 성장한 것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 외에도 키움증권이 영업이익 3477억원, 순이익 2663억원으로 전년보다 29.7%, 25.8%씩 늘어났고, 미래에셋증권도 영업이익 4102억원, 순이익 2983억원을 기록하면서 10.6%, 2.8% 성장했다.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3367억원, 순이익 2500억원으로 3.9% 4.0%씩 오르면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다.

앞서 3분기 초에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으로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을 보였지만, 8월 말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지난 3분기에만 코스피는 11.5% 상승했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6월 말 68조9724억원에서 9월 말 76조4474억원으로 10.8% 급증하며 증권사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시의 질적 개선은 증권사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등 추가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이익 확대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증권사 5곳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연구원은 "증권사들은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기반으로 브로커리지와 기업금융(IB) 수익의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에도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예탁금도 최초로 80조원을 넘기면서 5대 증권사의 4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른 '빅5' 증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총합은 7조2146억원으로 29%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9366억원으로 제시되면서 '2조클럽' 진입 가능성도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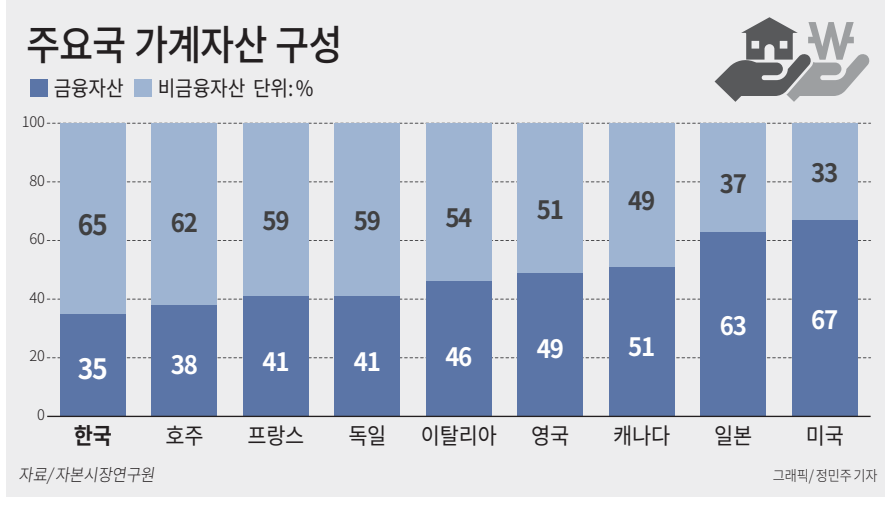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달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5곳이 모두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다. 더불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역시 이달 1곳 이상이 목표주가 상향을 제시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금 증권주는 멀티플 디레이팅 요인은 완화되고, 우호적 업황은 지속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구간"이라며 "직전 수 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낮은 밸류에이션에 고착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변화는 중장기 점진적으로 증권주 멀티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가계자산 자본시장 유도 인센티브 절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중심 자산, 경제성장 막아**
**연금적립 등 세제혜택 강화 해야"**



자료/자본시장연구원 그래픽/정민주 기자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있어,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은 가계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공급되는 것을 제약해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 확대는 혁신기업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가계는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아 유동성이 부족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가계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주식·채권·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으로 구성돼, 가계 저축이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가계의 자산 형성 방식이 자발적으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특히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가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50.7%보다 낮다"며 "미국의 401(k)는 연간 납입 한도가 7만달러(약 9900만원)에 달할 만큼 세제 혜택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채권전문가 85% "기준금리 동결 전망"

**금투협, 채권 종사자 100명 조사**
**종합 채권시장심리지수 12.4p 상승**

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채권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11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10월 13~16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한은이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브로커 등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달 종합 채권시장심리지수(BMSI)는 111.5로 전월(99.1) 대비 12.4포인트 상승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금리 하락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BM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시장 심리가 양호함을, 미만이면 위축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리전망 BMSI는 151.0으로 전월(115.0)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하락 응답자는 55%(전월 34%)로 21%포인트 늘었고, 금리 상승 응답은 4%(전월 19%)로 15%포인트 줄었다. 미·중 갈등 심화와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금리 하락 기대감이 확산된 결과다.

물가 BMSI는 85.0으로 전월(70.0)보다 15포인트 상승하며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2%가 물가 상승을, 7%가 하락을 전망했다. 수입물가와 유가 상승에도 내수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환율 BMSI는 54.0으로 전월(91.0) 대비 37포인트 급락했다. 응답자의 49%가 환율 상승을, 3%만이 하락을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 '신한 프리미어' 고객자산 200조 돌파

**신한투자, 자산관리 시장 입지 확대**

신한투자증권이 '신한 프리미어(Premier)'를 통해 자산관리 시장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Premier' 산하 채널을 거래하는 고객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 Premier' 산하 채널에는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인 PWM, 패밀리오피스, PIB를 비롯해 증권 영업점, 디지털 플랫폼 '신한 SOL 증권'이 포함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 Premier'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뿐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 한 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컨설팅, 브랜드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자산관리 가이드북 '혜안(慧眼)' 등은 초고액자산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한 Premier 세미나'는 시황 전망, 섹터별 분석, 투자전략 등 고객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도곡·압구정·여의도·반포·청담·광화문 등 6곳에 마련된 '신한 Premier Hall'을 통해 우수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세미나와 문화 체험(꽃꽂이, 다도, 드로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 및 가족 행사, 미팅 등을 위한 공간 대관도 지원하고 있다.

정용욱 신한 Premier를 총괄하는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앞으로도 신한 Premier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미래운용 'K-전력기기' 투자 ETF 출시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를 상장한다고 21일 밝혔다.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는 글로벌 탑티어로 부상한 K-전력기기 대표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KEDI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지수(Price Return)'로, 전력기기 BIG 3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를 중심으로 밸류체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전력기기란 전기를 생산·전송·분배하는 데 필수적인 기기(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등)와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 공급하는 산업이다. 고효율, 친환경,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술 표준화 및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는 글로벌 기업들을 추월하기 시작한 코리아 전력기기 기업들에 효과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허정윤 기자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후속조치 착수

# ‘하늘길 독점’ 완화 절차 본격화 10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추진

**슬롯·운수권 이전 본격화**
**독과점 완화로 소비자 이익**
**2026년 신규 취항 길 열려**
**에어프레미아·버진 가세**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괌·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 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정신질환 산재’ 10년 새 10배 급증

### 김위상 “예방 중심 마음건강 정책 시급”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 산재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40건이 승인돼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적응장애’였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지난해 2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53.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3년간은 매년 3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요양기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2016년 533.3일에서 지난해 731.3일로 늘며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섰다. 올해도 724.0일로, 산재 승인 노동자들이 평균 약 2년간 근무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전기안전공사, 삼성SDI와 ESS 안전관리 협약

### 기술교류·인력양성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삼성SDI와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개발·기관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류 등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가 최근 국내 최초로 열린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인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ESS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전주기에 걸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리더십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며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APEC 특수 노린 역대급 수출 ‘세일즈전’

**산업부, ‘붐업코리아 Week’**
**전국 주요 28개 전시회 연계 개최**
**70개국서 1700명 바이어 방한**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세일즈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열고,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수출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 행사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전시회·문화·관광을 결합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맞아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한다.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참가기업도 4000여개사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행사장 조감도. /산업부

전국 전시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돼 ▲수도권(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 ▲충청(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대구FIX·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광주 빅스포·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 권역별 대표 산업전시가 함께 열린다.

또 산업전시회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수도권 한강 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지역별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체류기간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

킨텍스 주 전시관에는 ▲AI·혁신기술관 ▲지역상생관 ▲컨설팅관 ▲한류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시에라베이스’(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심지’(VR 중장비 시뮬레이터), ‘디지털센트’(AI 맞춤형 향수) 등 국내 혁신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또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미국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RMK 마린 등 해외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현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돼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전, 전력구 무선통신망 기술로 WBA 대상

###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 수상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 WBA Industry Awards’(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의 공공 서비스 혁신성을 인정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부문 대상(Best Wi-Fi for Social Impact)’을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로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WBA(Wireless Broadband Alliance)는 전 세계 통신·네트워크 기업과 플랫폼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AT&T, 인텔, 구글, 애플 등 다수의 세계적 기업으로 구성된다.

한전의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은 지하 전력설비 통로인 전력구 내부에 무선 네트워크 기반 통신망을 구축해, 재난·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전력설비 현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특히 ▲통신 음영지역인 지하 밀폐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연결 ▲저비용 고효율의 통신 인프라 구축 ▲전력설비 안전관리와 작업자 보호 강화 ▲무선통신망, 국가재난안전망(PS-LTE)과 연계하여 경찰, 소방과의 비상대응이 강화되어 해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 윤준철 ICT운영처장은 “이번 WBA 어워드 수상은 한전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인공지능),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설비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 뉴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시스와 손을 잡고 뉴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뉴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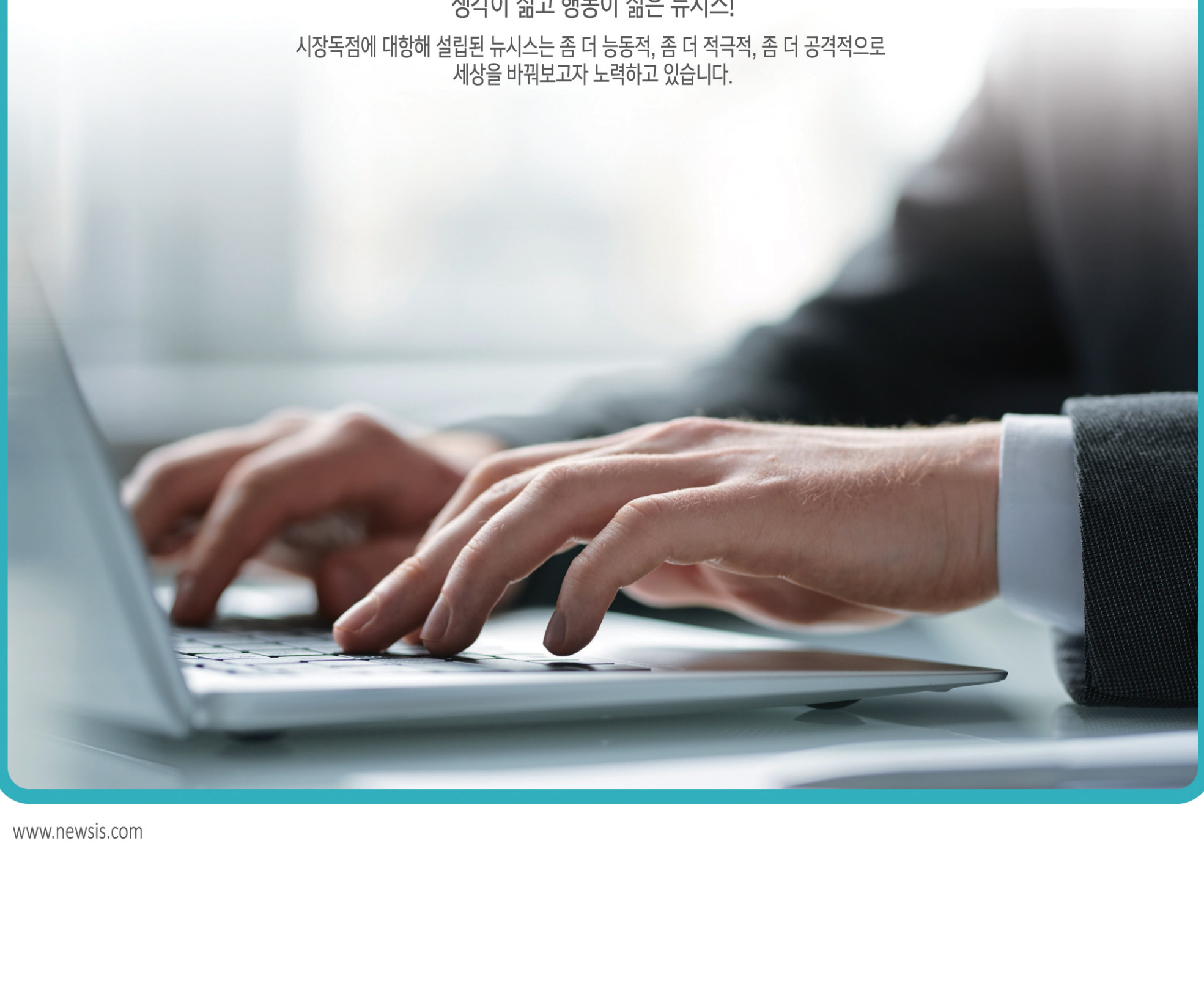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 뉴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시스!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newsis.com

# 내년부터 '경북형 공동영농' 전국으로 확산

**2030년까지 100곳 육성 목표**
**내년 6곳 선정… 1곳 당 20억 투자**
**사업 첫해, 국비 26억으로 종합지원**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공동영농 확산 지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공동영농 확산 지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선 6곳이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6곳에 2년간 한 곳 당 평균 20억원을 투자한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국비 26억원을 투입해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영농 20ha 이상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법인이 사업 대상이다.

쌀을 제외한 두류·서류 등 식량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7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다음 달 말쯤 선정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농지임대), 출자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경북형 공동영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23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주는 주주가 되는 '주주형 2모작 공동영농'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바꾸고 있다"며 "고령화, 정체된 농업소득, 낮은 곡물 자급률 등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농업대전환을 더 빠르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난 20일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발표회.

# 경북도, 736억 규모 연구인재 양성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전국 우수인재, 경북으로 유치·성장**

경북도는 지난 20일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국제관에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발표회를 열고, 경북형 최고급 연구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난 9월 선발된 1기 장학생은 총 18명으로, 포항공과대학교 과학기술 인재 15명과 국립경북대학교 한류 인재 3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박사과정 8명, 석·박사 통합과정 10명이며, 수도권 및 타 지역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과 KAIST 등 국내 최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앞으로 경북의 연구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736억원 규모로 향후 9년간 추진된다. 전국의 우수 인재를 경북으로 유치해 성장시키고, 지역 내 취업과 창업으로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경북도는 단순한 장학 지원을 넘어 ▲국내외 인재 유치 ▲지역 정주 기반 마련 ▲지역 취·창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수혜 학생은 지원 기간에 상응하는 최대 3년 동안 경북 내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해야 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

14개 구역 3만2000호 신청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해당 지역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명·금곡 구역은 공모대상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호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 해운대1·2 구역은 공모대상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호가 공모신청서 제출했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 규모는 선정 물량 대비 평균 5.7배 수준이며,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퍼센트(%)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명·금곡 구역은 신청 규모는 선정 물량(2500)호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해운대1·2 구역은 선정 물량 3200호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10~11월 신청서를 평가하고 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협의 가능성

광주시, 시비 부담액 감축 추진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구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의 총예산에 협의 가능성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시비 부담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에게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 공사 정부 분담액 확장'을 제안했다.

함 사장은 "방음터널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사업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정부와 광주시 예산 비율에 대해 재협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시는 시비 부담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국토부) 등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구간 확장공사 구간은 총 연장 11.2㎞다. 차로 확장과 함께 방음터널 12개소, 교량 20개소가 신설된다. 또 노후도로 구조물과 방음벽 등 기존 시설물도 전면 개량돼 2029년 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 공사예산은 총 7934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이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됐지만 하루 적정 통행량 5만1300대의 2.7배인 14만대가 통행하면서 재확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총 예산이 2762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지난 2023년 설계에서는 방음터널 등이 추가되면서 79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올해 착공예산 200여억원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 포항시 유휴공간, 문화의 장으로 재탄생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다시, 육거리 RE:CROSSING'

포항시는 육거리 중앙상가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역 상권과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공간 재활성화 공공프로젝트 '다시, 육거리 RE:CROSSING'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간 주도형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구도심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과 청년,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문화의 장을 조성한다.

중앙상가 내 빈 점포 22곳은 전시·체험·공연 공간으로 변신한다.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학과 학생들의 졸업 전시를 비롯해 지역 청년 밴드 공연, 예술인 협업 프로그램 등으로 채웠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건축학과 졸업작품전(16개소) ▲IT프로젝트 전시(2개소) ▲'색다른 시선' 특별전(1개소) ▲국제세미나(1개소) ▲헤리티지문화전시전(1개소) ▲육거리 역사전시관(1개소) 등이 마련된다.

행사 기간 동안 중앙상가상인회는 참여 학생들에게 음식점과 카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포항시는 '중앙상가 가을 야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포럼'을 함께 열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 임대사업 ▲영일만친구 야시장 ▲청년창업가 팝업스토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

#### '청소년상상페스티벌' 운영

광주에서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볼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25일 5·18민주광장에서 '2025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주도형 문화축제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활동이 어우러져 펼쳐진다.

행사장 곳곳에는 디지털플레이존, 인공지능(AI) 아트체험,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등 25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16개의 지역 청소년기관이 참여한다.

또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뮤지컬·태권도 특별공연, 청소년 밴드 버스킹, 플래시몹 등 다양한 무대가 청소년과 시민들을 맞이한다. /광주=양수녕 기자

### 안동시

#### 안동호 차량도선 운항 재개

경북 안동시 안동호 상류 지역 차량도선 운항이 22일부터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가을 장맛비로 안동호 수위가 148m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결정됐다.

운항을 재개하는 선박은 경북 제705호이다. 도산면 동부리에서 예안면 부포리를 운행하는 차량도선이다.

이번 안동호 수위 회복으로 차량도선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안동호 상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반기 가뭄으로 중단됐던 도산면 동부리~예안면 부포리 간 차량도선 운항을 안동호 수위 상승에 따라 즉시 재개한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 대구시

#### 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광역시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것은 6월 25일 광주, 7월 4일 대전, 7월 25일 부산, 9월 12일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타운홀 미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지역 발전 방안을 직접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적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여수시

#### '혼밥식당' 46곳 선정

전남 여수시가 1인 가구와 1인 여행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혼밥식당' 46곳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혼밥식당 선정은 혼자 식사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여수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8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과 현장 발굴을 병행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46곳을 선정했다. /여수(전남)=양수녕 기자

# 주류업계, 3분기 실적 '빨간불' 와인·해외시장 공략 반전 모색

내수 부진 장기화와 알코올 소비량 감소에 따라 주류업계의 3분기 실적이 암울할 전망이다. 업계는 와인 성수기로 꼽히는 겨울 시즌에 맞춰 판촉 경쟁에 나서는 동시에 해외 시장과 유통 채널 다변화로 반등을 노린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3분기 매출액은 6855억원, 영업이익은 6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04%, 6.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비맥주는 비상장사로 구체적인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회사 AB인베브의 매출 감소 흐름에 따라 3분기 역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칠성음료는 해외 사업의 약진 덕에 매출 4조748억원, 영업이익 207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12.0%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이같은 성장 역시 국내보다는 해외 자회사 실적이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절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회식이 감소, 주류 소비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5년 9.1L에서 2021년 7.7L로 감소했다가 2022년 8L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특히 국산 주류의 소비는 7.1L로 7년 만에 15% 가까이 줄었다.

이처럼 내수 기반이 약화되자 주류업계는 수출과 새로운 주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세계화' 전략에 따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거점을 확장 중이다. 베트남에 오는 2026년 첫 공장을 완공하고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장 완공을 기점으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K주류' 수출 호조가 기대된다.

롯데칠성음료는 파키스탄·필리핀·미얀마 등 동남아 자회사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상반기 해외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계속되며 내수 전 영역에서 매출이 하락세를 그렸지만, 주류 수출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순하리' 등 소주 제품 중심으로 선전하면서 실적이 5.9% 증가했다.

회사는 글로벌 부문에서 자회사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신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생산 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병입 사업 지역을 확대해 글로벌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무알코올 맥주 브랜드 '카스 0.0'과 '카스 레몬 스퀴즈 0.0'을 전면에 내세워 논알코올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와인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들은 가을·겨울철 와인 성수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전과 기획전을 열며 매출 확대에 나섰다.

이마트24는 '와인 빅 데이'를 통해 최대 74%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손상된 라벨의 와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라벨 손상 와인전'을 도입했다. CU는 자체 브랜드 '음mmm!'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1만 원 이하 와인 시장을 넓히고 있고, GS25는 와인 전문 플랫폼 '와인25플러스'를 통해 사전 예약 와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5000원대 칠레산 와인 '테이스티 심플'을 선보이며 초저가 와인 시장을 공략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겨울이 주류업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24가 와인 빅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24

**하이트진로** '소주 세계화' 전략 내년 베트남 첫 공장 완공·생산

**롯데칠성음료** 동남아 자회사 호조 상반기 해외매출 비중 40% 넘겨

**오비맥주** 논알코올 시장 확대

**이마트24** '와인 빅 데이' 74%↓

# 재생원료 100% '칠성사이다 페트병' 출시

롯데칠성음료, 국내 탄산음료 첫 사례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탄산 음료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을 출시한다.

PET 재활용은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 Mechanical Recycled PET)와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Chemical Recycled PET)로 나뉜다. 새롭게 선보이는 칠성사이다 500mL 페트 용기는 국내 탄산 음료 최초로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로 만든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롯데칠성음료는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제품을 기획했다.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 원료 1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에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2200t의(2024년 칠성사이다 500mL 판매량 기준) 플라스틱과 약 2900t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패션컬리페스타' 시즌상품 최대 88%↓

27일까지 6500여개 상품 할인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패션컬리페스타'를 열고 6500여 개 상품을 최대 88%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패딩, 코트 등 시즌 상품과 함께 컬리 단독 특가 상품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 컬리는 떼르드 캐시미어 캐시미어100 에센셜 가디건, 'R2W' 에타 라콘 더블 재킷, '노미라떼' 클래식 메리노울 니트 등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비뮤즈맨션' 핸드메이드 코트, '르쏭드비' 실크 스커트, '베흐트' 진주 귀걸이 등 컬리 단독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신규 입점한 '제이청', '쉬즈미스' 등 브랜드 상품도 특가로 구성했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1시에는 선착순으로 반값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카테고리별 쿠폰팩과 신규 브랜드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롯데백화점, APEC기념 외국인 할인행사

식품관 5만원 구매시 5000원 할인

롯데백화점이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맞아 방한 외국인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혜택을 마련해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점에서 'APEC 정상회의 기념 프로모션'을 연다. 행사 기간 백화점 전점 식품관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에게 5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호텔과 협력해 APEC 기간 중 롯데호텔 서울·월드 등 6개 지점에 투숙하는 외국인 고객에게는 4가지 단독 혜택이 담긴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에는 10% 롯데상품권 사은 쿠폰, 식당가 할인 쿠폰 등이 포함된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도 참여해 내수 진작에 힘쓸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 '고메 소바바치킨' 누적 판매량 2000만봉

**CJ제일제당, 신제품 '마쏘킥' 출시**
**'소스코팅 공법' 전문점수준 바삭함**

CJ제일제당이 '고메 소바바치킨' 세 번째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고메 소바바치킨'은 기름에 두 번 튀겨낸 닭고기에 CJ제일제당이 독자 개발한 '소스코팅 공법'을 적용해 특제 소스를 골고루 얇게 입혀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한 제품이다. 냉동치킨의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맛 품질로 2023년 출시 후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돌파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소이허니', '양념'에 이어 세번째로 선택한 맛은 마늘이다. 신제품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마늘쏘이킥) 순살'은 '매콤짭짤한 소이소스에 마늘로 킥!'이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대파와 고추향을 담아 매콤한 간장 소스에 마늘로 포인트를 줘 감칠맛을 더했다. 마늘 풍미 가득한 매콤짭쪼름한 맛이 특히 늦은 저녁 야식이나 맥주 안주로도 제격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 순살. /CJ제일제당

또한 닭가슴살 특유의 퍽퍽한 식감은 줄이고 육즙은 그대로 살렸다. 여기에 소스를 얇게 코팅해 튀김 옷과 조화로운 맛은 물론이고 '소바바치킨'의 시그니처인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했다. 에어프라이어 10분이면 완성돼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도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 순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SSG닷컴을 비롯해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CJ더마켓에서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 순살'을 구매한 고객들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26일까지 이어지는 CJ더마켓 브랜드위크에서는 이번 신제품을 포함한 CJ제일제당 치킨 제품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아이폰 17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CJ제일제당은 '고메 소바바치킨'과 'CJ 자메이카 Style 치킨' 등 외식 및 배달 치킨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메뉴를 냉동치킨으로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출시한 'CJ 자메이카 Style 치킨'은 출시 첫 주에 B마트 '지금 핫한 신상품 Top 30' 1위에 올랐으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해 3일만에 8000개 이상이 판매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 GS25, 1~2인 가구 장보기 플랫폼 선도

신선식품 매출 매년 두자릿수 성장

편의점 GS25가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며 1~2인 가구를 위한 '근거리 장보기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GS25는 신선식품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선식품 특화 매장인 '신선강화형매장(FCS)'도 당초 목표보다 빠르게 750호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GS25의 신선식품 매출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20%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성장률은 27.4%에 달한다. 이는 콜드체인 시스템 적용, 슈퍼마켓 GS더프레시와의 통합 구매, '신선특별시' 등 차별화된 브랜드 운영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GS25는 약 2000여 종의 신선식품을 운영 중이다.

특히 신선식품 구색을 대폭 확대한 FCS 매장 확대가 눈에 띈다. 당초 연말까지 700호점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이달 750호점을 넘어섰으며, 2026년까지 1000호점으로 늘린다는 중장기 목표도 설정했다. /손종욱 기자

# 뷰티업계, 유럽 중심 수출국 다변화… 외형·내실 '두 토끼'

**아모레퍼시픽 리코 파트너십 체결**
**스웨덴·독일 등 마몽드 제품 출시**

**애경산업 영국 현지로 '루나' 공급**

**에이블씨엔씨 동유럽 매출 증가**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의 리코 매장에서 고객이 마몽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영국 내 K뷰티 매장 '퓨어서울'에 설치된 '루나' 판매대 전경. /애경산업

국내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중점을 둔 브랜드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지난달 북유럽에서 마몽드를 공개하며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북유럽 최대 뷰티 유통사인 '리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마몽드 유통망을 확보했다. 리코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스칸디나비아 Z세대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북유럽 진출로 아모레퍼시픽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오프라인 매장 33곳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5개 국가 온라인 채널에서 마몽드 제품 11종을 출시한다. 대표 제품은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다. 꽃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을 함유한 고기능성 제품으로 마몽드가 독자 구축한 '하이퍼 플로라' 기술을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2분기 기준, 헬스앤뷰티 멀티브랜드숍인 CJ올리브영에서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마몽드가 라네즈, 에스트라 등과 함께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모레퍼시픽의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매출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54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994억원으로 82% 커진 결과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라네즈 등 기존 브랜드에서 내놓은 신제품이 판매 호조를 이뤄낸 것이 주효했다. 또 올해 들어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헝가리 등 유럽 권역의 핵심 공항에 라네즈 매장을 새롭게 선보여 글로벌 고객과 접점을 늘리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마몽드의 이번 북유럽 진출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를 앞세워 영국 등 유럽에서 수출국 다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애경산업은 영국 런던 소재 유통 기업 퓨어서울과 협업해 이달부터 영국 현지로 루나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및 영국 내 화장품 유통을 위한 필수 등록 제도인 유럽 화장품 인증(CPNP)과 영국 화장품 인증(SCPN)을 모두 취득하며 제품 안전성을 입증했다.

컨실러 등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시작으로 색상, 제품군 등을 현지 소비자 요구에 발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루나는 2015년 중국 시장을 비롯해 이후 일본, 베트남, 미국 등으로 수출 국가를 확장해 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올해 8월 기준 8404곳에 이르는 오프라인 매점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일본 시장의 경우, 최신 뷰티 유행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제품군을 적용한 전략이 성공해 브랜드 인지도를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며 "먼저 영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향후 유럽 시장까지 소비자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뷰티기업 에이블씨엔씨도 해외 매출 비중을 지속 늘리는 가운데, 이탈리아를 교두보로 서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들어 1분기 해외 매출 비중 56%, 2분기 61% 등으로 해외 시장에서 외형을 키웠다. 이 중 올해 상반기 유럽 매출은 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폴란드, 터키, 러시아 등 동유럽에서 성과를 축적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탈리아 최대 패션 뷰티 유통채널 OVS, 헬스앤뷰티 채널 더글라스, 드럭스토어 데엠, 티고타 등 약 530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

이와 함께 미샤는 지난달 17~2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뷰티위크 2025'에서는 단독 부스도 운영해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과 적극 교류했다. 브랜드 대표 제품인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과 'M 퍼펙트 커버 세럼 비비크림'을 전면에 내세워 현지 소비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렸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유통망 구축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활용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미샤 제품력을 직접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셀트리온, 3분기 역대최대 실적… 연간 영업이익 1조 '눈앞'

**매출액 1조260억, 영업익 3010억**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장세 지속**
**"합병으로 인한 영향 대부분 해소"**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셀트리온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양적, 질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액 1조260억원, 영업이익 301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45% 증가해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조82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693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4% 급증했다.

바이오의약품 3분기 매출만 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바이오의약품 누적 매출은 2조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신규 제품군의 판매 호조가 주효했다. 신규 제품군 3분기 매출은 5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커졌다.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분기 42%에서 올해 3분기 54%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7월 미국, 9월 유럽에서 각각 신규 출시한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등은 500억원이 넘는 합산 매출을 올렸다.

셀트리온 측은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옴리클로 등이 발매 첫 분기에 성과를 거두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4분기에는 제품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을 지속 발매해 이익률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말에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안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셀트리온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29%)로도 수익성 개선을 입증한 것이다. 앞서 셀트리온 연간 영업이익률은 2023년 30%에서 2024년 14%로 외형 성장이 꺾인 바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통합 셀트리온 출범 2년 차에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매출원가율이다. 지난해 3분기 48%, 올해 2분기과 3분기 각각 43%, 39% 등으로 매출원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4분기에는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높은 원가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수율개선(TI) 제품을 늘리고 3공장 생산 확대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 효과다. 개발비 상각 종료 등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정상화된 매출원가율 및 이에 기반한 영업이익 확대를 통해 한 차원 높아진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 ADC 파이프라인 2종 개발권 확보

〈항체·약물 접합체〉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 공동연구 계약**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중국 바이오텍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제조 및 상업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다진다.

특히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는 ADC 항암제 연구개발에서 차세대 유망 기술로 꼽히는 이중 표적·이중 약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 2종에 대한 공동 개발권을 확보했다. 또 별도의 페이로드 1건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다른 개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독점적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공동 개발이 확정된 파이프라인 'TJ108'은 토포이소머라제-1 억제제 및 튜불린 억제제 기반의 치료제다. 다양한 암에서 과발현되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와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3(HER3)를 모두 표적으로 하는 기전을 갖췄다. 후속 파이프라인은 양사 협의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론트라인과 협력해 환자 미충족 수요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회를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20일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에서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왼쪽)과 자오위안 첸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 대표(오른쪽)가 공동연구 및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유한양행**

# "고셔병, 함께 극복해요"

유한양행은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2025 세계 고셔병의 날'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고셔병의 날은 전 세계 환자, 환자 단체, 의료인, 연구자, 산업계 등이 희귀질환 고셔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로 2014년 국제 고셔 연합에서 제정됐다.

올해는 '증상을 인지하고 진단 여정을 단축하자'라는 주제로 열려 고셔병 초기 증상 조기 인식의 중요성 확산, 진단 지연으로 인한 부담 축소, 치료 접근성 개선 등에 중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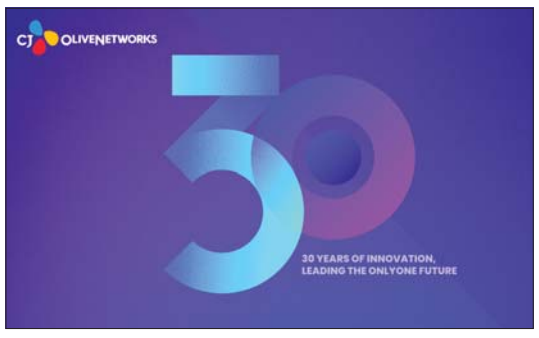
유한양행은 핵심 정보를 건강정보 채널 '건강의 벗'에서 공유하고, 임직원 개인 SNS 및 이메일 서명에 캠페인 배너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셔병을 알리고 있다.

고셔병은 유전성 희귀 대사 질환이다.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가 결핍돼 '글루코실세라마이드' 등이 세포 내 소기관인 리소좀에 축적되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의 YH35995는 글루코실세라마이드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다. 유한양행은 YH35995를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약물 안전성과 약동학적, 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있다.

유한양행 김열홍 R&D총괄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쓰고, 혁신 치료제 개발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UKEBOX MUSICAL
쇼 머스트 고 온
In 대학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쇼는 계속된다!
난 바바비고다! 무슨 일이있어도 반드시 일어선다!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믿어. 두고봐라, 이것들아!
2025년 10월 30일(목) ~ 11월 30일(일) 대학로 업스테이지극장
홍서준 송하림 황인보 고혜미 이유선 윤토왕 손난희 이주훈 김도후 강동석 박수현 서유인 김혜상 김희선
총괄프로듀서 최대성 | 작/연출 최대성 | 드라마트루그 김동미 | 음악감독 최은지 | 음악작곡 이정현 | 안무감독 이규도
무대디자인 박단추 | 음향감독 박미리 | 조명감독 곽두환 | 영상디자인 유정임 | 무대제작 수 무대미술 | 조연출 이시훈 | 연출보조 우정인
제작 극단 쇼고(showgo) 극단 신명 | 기획 주식회사 아츠컴퍼니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 NOL 티켓 | 문의 02-764-9102
본 공연은 서울특별시 '2025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극장에서 진행되어 대관료 할인을 지원받았습니다.




### CJ올리브네트웍스, 톱5 AX·DX 기업 도약 선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창립 기념일인 지난 14일 유인상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년간의 성과와 2030년 국내 톱5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 청호나이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가을 야외활동

청호나이스는 사내 봉사단체인 '작은사랑 실천운동본부'가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가을 야외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청호나이스 임직원들은 복지관 이용자들과 함께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즐기고, 산책과 식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청호나이스

### 롯데케미칼, '도서지역 아동 환경교육 후원' 협력

롯데케미칼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5층에서 한국보육진흥원, 코끼리공장과 함께 '도서지역 아동 환경교육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김영번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부문장, 이채진 코끼리공장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 대상웰라이프-승일희망재단 '뉴케어 지원사업'

대상웰라이프가 루게릭병 환우의 건강한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과 함께 '뉴케어 지원사업'을 6년째 이어간다. 올해는 9000만 원 상당의 균형영양식 뉴케어 1410박스를 환우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웰라이프

### NHN '한게임 섯다&맞고', 독도의날 기부금 전달

NHN은 자사의 모바일 게임 '한게임 섯다&맞고'가 독도의 날을 맞아 진행한 기부 이벤트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1000만 원을 대한민국독도협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NHN

# LG전자·삼성전기, 산업발전·국가위상 제고 인정받아

**'제20회 전자·IT의 날' 시상식**
**조주완 LG CEO, 금탑산업훈장**
**황치원 삼성전기 상무, 대통령 표창**

조주완
LG전자 CEO

황치원
삼성전기 상무

조주완 LG전자 CEO와 황치원 삼성전기 상무(패키지개발팀장)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전자·IT의 날' 시상식에서 각각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자·IT의 날'은 2005년 전자·IT 산업 수출 1000억달러(약 140조원) 돌파를 기념해 제정된 기념일. 산업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조주완 CEO는 1987년 금성사(현 LG전자)에 입사한 이후 37년간 재직하며 LG전자와 국내 전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1년부터 CEO를 맡아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 분야의 글로벌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전장사업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완성차 상위 10개사 중 8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전장 수주잔고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황치원 상무는 반도체 패키지기판(FCBGA) 분야에서 선행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상무는 2011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이후 국내 최초로 고성능 서버용 패키지기판을 개발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며 산업 위상을 높였고, 코어리스·실리콘 캡 내장 등 차세대 기판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AI·클라우드·전장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 두산연강재단, 젊은 문화예술가 지원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 열어**
**수상자에 총 2억9000만원 지원**

전서아
작·연출가

박정우
작가

두산연강재단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로는 공연예술부문 전서아 작·연출가와 시각예술부문 박정우 작가가 선정됐다.

재단은 수상자들에게 총 2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부문별 상금은 3000만원이며, 공연예술부문 수상자에게는 1억5000만원 규모의 공연 제작비가, 시각예술부문 수상자에게는 8000만원 상당의 두산갤러리 전시 및 해외 레지던시 비용 등이 제공된다.

공연예술부문 수상자인 전서아 작·연출가는 여성, 퀴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을 다양한 공연 형식으로 풀어내며 설득력 있는 서사를 구축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시각예술부문 수상자인 박정우 작가는 회화의 재료, 도구, 기법, 역사적 맥락 등을 폭넓게 탐구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로 평가된다. 또한 젊은 작가들과 그룹전을 기획하며 동시대 예술의 소통과 확장에 기여해왔다.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예술이 가진 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 끊임없이 도전하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격려를 보낸다"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두산연강재단의 책임이자 의무다. 이번 수상이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분들께 든든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쿠팡, APEC 공식 홍보 협력사 선정

**APEC 성공 기원 메시지 담은**
**로켓배송 포장재 5000만개 제작**

쿠팡이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홍보 협력사 및 'APEC CEO 서밋'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APEC 성공 기원 메시지를 담은 로켓배송 포장재 5000만 개를 제작해 전국적인 응원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쿠팡은 APEC 준비기획단이 선정한 13곳의 공식 홍보 협력 기관 중 하나로,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APEC 2025 응원 메시지가 담긴 박스와 비닐 포장재 5000만 개를 제작해 이달 초부터 전국 로켓배송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APEC 개최 의미를 전달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무역·투자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응원 메시지가 새겨진 쿠팡 로켓배송 박스. /쿠팡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한국은 물론 APEC 회원국에서 수백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으로, 역사적인 국제 행사를 APEC 공식 후원자로서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쿠팡의 전국 로켓배송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모두가 APEC 2025의 성공을 함께 응원하고 그 열기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롯데벤처스,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日 도쿄서 '엘캠프 재팬 3기' 진행**

롯데벤처스와 롯데벤처스 재팬이 한·일 양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5 엘캠프 재팬(L-CAMP JAPAN) 3기' 현지 프로그램을 도쿄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K-스타트업센터 도쿄 등이 후원한다.

'엘캠프 재팬'은 롯데 창업주의 글로벌 개척 정신을 계승해 2023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일본 롯데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가 양국 인프라를 활용하며, 지난해부터는 일본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AI, 헬스케어, 콘텐츠, 푸드테크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9곳과 일본 스타트업 2곳 등 총 11개 기업이 선발됐다. 프로그램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선발된 스타트업의 IR 피칭과 투자자와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일본 주요 VC(벤처캐피탈)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수면 솔루션 스타트업 로맨시브 이수현 대표는 "현지 투자관계자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일본 수면 시장에서의 니즈를 확인한 만큼 현지 투자 유치 등 일본 시장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이틀째인 21일에는 일본 VC 투자유치 전략 패널 토크 세션과 유니콘 스타트업 '타이미' 대표의 강연 등이 열린다. 22일에는 미즈호은행 본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세션과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가이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욱 롯데벤처스 대표는 "현지 네트워크, 언어 등의 문제로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돕고자 한·일 롯데벤처스가 손을 잡았다"며 "높은 사업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한솥, 의료·아동복지기관 6곳 정기후원

**2012년부터 후원 이어와**

국내 대표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도시락은 2012년부터 이어온 의료·아동복지기관에 대한 정기 후원을 올해에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 이념 아래 의료기관 5곳(삼성서울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헤브론의료원)과 아동복지기관 1곳 (소양무지개동산)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비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불우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의료 연구 및 병원 발전, 아동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 지원에 우선 투입돼,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활동 전반의 질적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동복지기관 소양무지개동산에 전달된 기부금은 생활공간 개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에게 전달한 누적 후원 금액은 9억1000만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사

◆ **부여군** ◇5급 승진 △기획감사담당관 구은정 △행정지원홍보국 자치행정과 유명혜 △농업기술센터 이태훈 △농림축산환경국 농업정책과 백형열

## 부음

▲ 박춘화씨 별세, 최충연(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씨 조모상 = 20일, 대구 계산성당, 발인 22일 오전 8시40분. 053-254-2300

IZAKAYA
NAMU
이자카야 나무

EVENT

1+1 정식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30일(목)

장소 | 이자카야 나무 15개 전 지점

참여방법 | 정식 주문 고객 (저녁 7:30까지 주문 가능)

혜택 | 저녁 정식 6종 1+1 (동일메뉴 1+1, 단품 제외)

# 요양보호사 인력난, 근본적 대응이 시급하다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초고령화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제도다. 노인의 11.2%인 약 110만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핵심인력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심각한 '돌봄 공백(care deficit)' 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의 상태에 처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면서 2028년에는 무려 11만6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라는 구조적인 장애물에 기인한다. 실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령임금은 109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87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약 353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도의 숙련과 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처럼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도 인력 이탈의 원인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시간제)이 무려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주 소속기관 평균 근무 기간은 불과 3.3년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도 18%에 그친다. 젊은 인력의 기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무려 61세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국내 중장년 인력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인식하고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몇 만원 수준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일본 수준의 처우 개선 교부금 도입 등을 과감히 실시해서 인력 유인책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는 '해외 돌봄 인력'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인력도 한국의 낮은 급여로 꺼리고 있다.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외국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이유다. 더욱이 외국 인력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교육 훈련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 부담도 크다.

이처럼 국내외 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 구조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돌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장기요양 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현실을 개혁해서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9.1%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미준수하고, 특히 방문요양기관이 미준수 기관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변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노년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술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비 오는 날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손님은 넘치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다. 앱 호출은 계속 '배차 실패'를 띄운다. 이러한 풍경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급 인력을 둘러싼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인재 역량 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지만 이들이 일할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

중국은 고액 연봉과 연구 인프라를 내세워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로 과학자들을 '국보급'으로 대우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연구자들을 되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또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을 위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해외 인재들을 끌어오기 위해 비자 문호를 개방하며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연구자 한 명이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안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규제 중심적이나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 어려워져 실적 기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연구개발직을 초과근무 규제에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은 일부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대만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 일정 범위의 초과근무와 수당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핵심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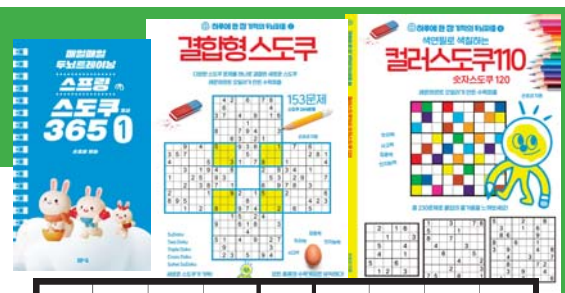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대학원 중심 교육과 고도화된 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등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과 차세대 낸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 호황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불안도 공존한다. 산업이 성장해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기계만 남는다.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인재를 잡지 못하면 반도체 경쟁력은 뒤처질 수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마련해야 메모리 업황 호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해봄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 3 | | 4 | 9 | | | 5 | |
| | 5 | 9 | 8 | | | | | |
| | 4 | | | 6 | 2 | | 8 | 7 |
| | | 1 | | | | 2 | | 8 |
| 7 | | | | | | | | 4 |
| 2 | | 3 | | | | 4 | | |
| 4 | 8 | | 2 | 1 | | | 9 | |
| | | | | | 6 | 8 | 2 | |
| | 2 | | | 3 | 8 | | 6 | |

| | | | | | | | | |
|---|---|---|---|---|---|---|---|---|
| | 4 | | 6 | 1 | 3 | 9 | 7 | |
| | 7 | | 9 | | | | | |
| 5 | 8 | | | | 9 | 7 | | |
| 9 | | 2 | | | | | | |
| 7 | 3 | | | | | | 2 | 9 |
| | | | | | | 5 | | 7 |
| | | 7 | 8 | | | | 9 | 6 |
| | | | | | 8 | | 3 | |
| | 2 | 3 | 1 | 9 | 7 | | 5 | |

할인도서

| | | | | | | | | |
|---|---|---|---|---|---|---|---|---|
| 6 | 6 | 1 | 8 | 3 | 7 | 4 | 2 | 5 |
| 5 | 2 | 8 | 6 | 4 | 1 | 7 | 9 | 3 |
| 3 | 9 | 5 | 7 | 1 | 2 | 6 | 8 | 4 |
| 4 | 8 | 6 | 9 | 2 | 1 | 7 | 5 | 3 |
| 1 | 7 | 4 | 9 | 8 | 5 | 6 | 3 | 2 |
| 2 | 6 | 3 | 4 | 6 | 9 | 5 | 1 | 7 |
| 7 | 1 | 8 | 9 | 2 | 5 | 6 | 3 | 4 |
| 9 | 7 | 1 | 6 | 5 | 3 | 2 | 4 | 8 |
| 8 | 5 | 4 | 1 | 9 | 2 | 3 | 6 | 7 |
| 6 | 5 | 9 | 8 | 7 | 4 | 3 | 1 | 2 |
| 8 | 3 | 2 | 4 | 9 | 1 | 7 | 5 | 6 |

| | | | | | | | | |
|---|---|---|---|---|---|---|---|---|
| 8 | 6 | 5 | 7 | 9 | 1 | 3 | 2 | 4 |
| 6 | 9 | 4 | 7 | 5 | 8 | 1 | 3 | 2 |
| 1 | 5 | 7 | 8 | 4 | 2 | 3 | 9 | 6 |
| 4 | 1 | 9 | 2 | 3 | 6 | 5 | 8 | 7 |
| 7 | 3 | 8 | 5 | 6 | 1 | 4 | 2 | 9 |
| 9 | 6 | 2 | 3 | 8 | 7 | 5 | 4 | 1 |
| 5 | 8 | 6 | 4 | 2 | 9 | 7 | 1 | 3 |
| 3 | 7 | 1 | 9 | 8 | 4 | 2 | 6 | 5 |
| 2 | 4 | 5 | 6 | 1 | 3 | 9 | 7 | 8 |

##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48년생** 학교 선배가 나를 돕는다. **6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어디로 갈지 갈 곳을 모른다. **72년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날. **84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불편을 가져올 것이니.

**37년생** 젊은 후배를 상갓집에서 만난다. **49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는 너무 크니 실망도 따른다. **61년생** 다정했던 동료와 불화를 조심하자. **73년생** 병법상의 최상책이 삼십육계라는데. **85년생** 양손의 떡 중 하나는 양보해야.

**3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50년생** 기회가 오니 판단력도 필요. **62년생** 이직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74년생** 세 사람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스승으로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86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39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51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도전. **63년생** 만나던 연인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75년생** 비를 맞은 개처럼 궁상맞다. **8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 사랑.

**40년생** 행한 적선이 복으로 돌아오다. **52년생** 나의 특기를 따라올 자가 없으나 더 노력. **64년생** 실속은 없으나 내일을 위해 축적. **76년생** 부모님이 그리워도 뵐 수가 없으니 산소라도 찾자. **88년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41년생** 믿거나 말거나로 남의 뒷얘기 하지 않도록. **53년생** 부조화는 불안정을 부른다. **65년생**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77년생**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도 변해만 간다. **89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으니.

**42년생** 표리부동은 결국에 내 흠도 드러난다. **54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66년생** 명상으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78년생**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려진다. **90년생** 아직 시간은 있으니 독신보다는 가정을 이루도록 해보자.

**43년생** 바람이 불어도 투자는 하는 일은 생각 말자. **55년생**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 **67년생** 남쪽으로 길을 떠나보면 생각도 변한다. **79년생** 어려운 일이 임시변통으로 우선은 해결. **91년생** 자신에게 실력지원을 아끼지 마라.

**44년생** 이사할 마음은 시간을 가져보자. **56년생** 이재에 관한 생각을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 **68년생** 오늘 걸으면 내일 뛰지 않는다. **80년생** 모아 둔 돈은 없으나 산 입에 거미줄 치랴. **92년생** 내 생각은 그림처럼 아름다우나 현실적일까.

**4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57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 시작.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1년생** 달걀을 쌓은 것처럼 시기가 위태로우니 투자는 금물. **93년생** 세상에는 수 없는 사연이 많으니 근심하지 말자.

**46년생** 명예는 나를 지켜주는 힘. **58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지 말자. **70년생** 혁신적인 생각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82년생** 죽은 후에는 좋은 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94년생** 사촌의 자식 고뇌를 보며 무자식 상팔자를 실감할 수도.

**47년생** 주식이 오른 만큼 빼내도록. **59년생** 배짱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하게 갖도록. **71년생** 급여가 적어도 보람으로 미래를 발전시켜라. **83년생**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 행운이 기다린다. **95년생** 일궈놓은 만큼 성과도 좋을 것이니 기다리자.

# 김상회의 四季

## 복을 불러오는 상달 고사

상달, 즉 음력 10월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시기이다. 이때 올리는 고사는 조상과 신령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달 고사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향한 경외심이 담긴 의례이다. 늦가을 하늘이 가장 맑고 청명한 시기에 올리는 고사는 한 해의 풍년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인 집안과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있다. 농경 사회에서 곡식 수확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수확의 풍요로움은 곧 신의 은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달에 조상에게 제물을 올리고 신령에게 고하며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평안을 부탁했다.

이는 가정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의 성격이며 이를 통해 복이 들어오고 액운이 물러난다고 믿었다. 한 해 동안 쌓였던 불운이나 불길한 기운을 털어내고 새롭게 맞이할 한 해의 길운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특히 상달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달이라 하여 이때 올린 기원은 평소보다 더욱 신령에게 잘 닿는다고 여겨졌다. 집안의 재물이 늘어나고 자손들이 평안할 것이라는 마음이 상달 고사에 가득 담겨있는 것이다. 상달고사는 대청이나 마당에 제상을 차리고 조상과 집을 지켜주는 신에게 술과 제물을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생선 떡 과일 곡식 등을 준비했고 집안의 형편에 따라 간소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마을 단위에서는 당산나무 아래나 공동 제단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상달 고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를 당산제라고 불렀다. 요즈음 상달 고사는 과거만큼 널리 지내지 않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과 가정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 행·편 집 인 | 이 장 규 | 편집국장 | 윤 휘 종 |
| 인 쇄 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5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9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수능일 지하철 운행횟수 늘리고 관공서·기업 출근 10시로 조정

**내달 13일 2026학년도 수능**
**교육부, 전국 1310곳서 실시**
**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교육부가 수능 당일 교통 혼잡, 소음,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차량 통제, 시험장 안전점검 등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수험생 55만4174명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소음·기상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며 경찰 비상수송 차량도 투입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돼 자가용 이용 수험생은 도보 이동이 필요하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영어 듣기평가 시간(13시10분~13시35분)에는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을 조정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시험장 주변의 버스·열차는 서행하며 경적을 자제하고, 행사장·공사장 등 생활소음도 최대한 통제된다.

기상 악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및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시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상시 점검 체계와 신속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문답지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건강에 유의하며 마음 편히 시험 준비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

서울시-EBS, 연내 영상 서비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손을 맞잡고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EBS와 함께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 시범 제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달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EBS 장애인 누리집에 올해 말 영상을 게시,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는 청각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언어 습득에 제약이 있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데다 기존엔 자막을 지원하는 콘텐츠만 있을 뿐, 수어 영상은 거의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하다 보고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EBS 외에도 콘텐츠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의 참여 및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수어 영상 제작은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해설 자막은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서울농아인협회는 농인·청인 수어통역사 섭외 지원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EBS 누리집에 콘텐츠가 게시되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도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학습콘텐츠 제작으로 학령기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한편 문해력 향상을 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해력 과정뿐 아니라 수학·영어 등 교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아세안 13개국 청소년 AI콘텐츠 실력 겨룬다

**AI융합교육연구회, AI 콘텐츠 공모전**
**AI활용 그림그리기·동영상 제작 부분**
**내달 8일까지 접수, 20일 수상작 발표**

AI 시대를 이끌 차세대 주역들이 창의적 역량을 겨루는 세계 최초의 국제 청소년 AI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AI융합교육연구회(회장 신승인)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 전창배)는 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AI로 하나되는 아세안+3, 함께 그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제1회 국제 청소년 AI 콘텐츠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 초·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한국 거주 외국인 학생과 유학생도 참가할 수 있으며, 유학생은 본국 국적으로 표기해 출전하게 된다.

AI융합교육연구회 '제1회 국제 청소년 AI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AI융합교육연구회

공모 분야는 ▲AI 활용 그림그리기 ▲AI 활용 동영상 제작 등 두 부문이다. 그림 부문은 Gemini, ChatGPT, DALL·E3, Midjourney 등을 활용해 창작 이미지를 제작·제출하고, 영상 부문은 Veo3, Flow, Runway, Sora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20초 이내 영상을 영어 자막과 함께 URL로 제출한다.

총 50개 작품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되며, ▲대회장상(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또한 중·고등학교 부문에서는 우수학교상과 지도교사 표창도 함께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구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표준협회, DX교육데이터협회,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 등이 후원한다.

작품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20일, 시상식은 11월 25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11월 8일 국회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세미나 및 토크콘서트'도 부대행사로 열린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외국인 관광객에 의료관광 홍보

인천공항 환승라운지에 안내책자 비치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라운지에 영문으로 제작된 의료관광 안내책자를 비치했다.

이번 안내책자는 '메디시티 고양(MEDICITY GOYANG)'을 주제로, 고양특례시의 주요 의료기관과 관광명소, 숙박, 교통 등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서비스를 상세히 소개하고, QR코드를 통해 의료관광 플랫폼 '다도라 GOYANG'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매년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해, 환승객 라운지와 관광안내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공항 내 홍보물 비치를 통해 '메디시티 고양' 브랜드를 해외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함으로써 도시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메디시티 고양(MEDICITY GOYANG)' 브랜드를 중심으로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의료관광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료·웰니스 산업과 관광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김포시, 25일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

교통카드 기준 200원~400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5일 첫 차부터 시내·마을버스 요금조정(인상)을 시행한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김포시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11개 업체가 대상이며, 시내버스 37개 노선, 광역버스 21개 노선, 마을버스 36개 노선과 김포똑버스에 적용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요금은 시내버스와 김포똑버스가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르고, 광역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또 마을버스는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이용 혼란방지를 위해 요금조정 시행 전·후로 시 홈페이지, 버스 안내방송, 차량 내부 및 정류소 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운송원가 증가 등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 및 원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조정이 시행된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버스 운영과 교통편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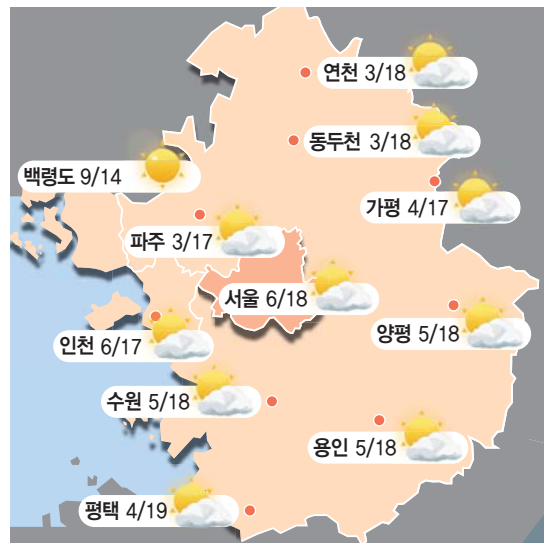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뜸 / 06:47 | 해짐 / 17:46

10월
22일(水)
음력 : 9월 2일

수도권 날씨
6~18℃

| | |
|---|---|
| 운동 지수 | |
| 빨래 지수 | |
| 세차 지수 | |
| 외출 지수 |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내년 초 이른 시기 중국 방문…시진핑 초청" /사진 뉴시스

▲희토류 통제 강화한 中, 9월 영구자석 대미 수출 29% 줄어

▲EU, 헝가리행 푸틴에 '통행금지' 면제할듯… "전범 오면 안돼" 반발도

▲美교통장관 "스페이스X 개발 뒤처져"…아르테미스 계약 재검토 언급

▲"미국, EU '러 동결자산 원금 우크라 대출' 구상에 반대 표명"

▲아슬아슬한 가자 휴전…이스라엘군, 또 "선 넘은 하마스 사살"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775호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주류업계
3분기 실적 '빨간불'
와인·해외시장 공략
L1

뷰티업계
유럽 중심
수출국 다변화
L2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후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주최 : metro · metro경제

# 제약·바이오 새 패러다임, 오가노이드·플랫폼 기술이 이끈다

**바이오 혁신 이끌 새 기술 한자리에**
**동물실험대체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경쟁력 강화 '약물전달 플랫폼' 등**
**독자기술로 제약·바이오산업 고도화**

미래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기술들을 조망하며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차세대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부상한 '오가노이드' 기술, 소재·제형·효능 등 다각도에서 신약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 등을 독자 구축해 K제약·바이오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22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리는 '2025 제약·바이오 포럼'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문 강연을 진행한다.

기조 강연을 맡은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미세유체 기반 플랫폼이 이끄는 차세대 제형 혁신'을 소개한다. 인벤티지랩은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를 활용해 장기지속형 주사제형을 개발했다. 기존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지속 효과는 극대화하는 제형으로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플랫폼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조직과 장기를 3차원으로 구현한 모사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원천 기술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고 현재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 평가법 '오디세이'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오디세이는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비임상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 플랫폼으로 여러 질환 영역에서 응용 가능하다. 20종 이상의 장기별 오가노이드에서 질병의 진행 상황을 정밀하게 재현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GC인삼공사도 오가노이드가 미래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오가노이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바탕으로 KGC인삼공사 대표 브랜드 정관장의 홍삼 성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장 오가노이드'에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영향을 규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포럼에서는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항-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활성을 가지는 신규 균주 개발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 2025 제약·바이오 포럼 프로그램

| 시간 | 구분 | 프로그램 |
|---|---|---|
| 13:00~14:00 |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 |
| 14:00~14:15 | 축 사 |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
|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 14:15~14:50 | 기조강연 |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br>: 미세유체 기반 플랫폼이 이끄는 차세대 제형 혁신 |
| 14:50~15:30 | 강 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br>: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
| 15:30~16:10 | |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br>: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
| 16:10~16:50 | |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br>: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 |

손 소장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해 장 발달 촉진과 염증성 장 질환 보호 효과를 갖춘 새로운 유산균을 발굴했다. 이 유산균은 KGC인삼공사로 기술이전됐다.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도 참석해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KGC인삼공사는 오가노이드를 적극 도입해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기반 저속노화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김 주 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생명공학 전문 벤처기업 인벤티지랩의 김주희 대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기술을 응용해 혁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매일 경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약물 1~3개월 분량을 1회 주사로 대체하는 신규 제형을 갖췄다. 환자가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복약 순응도를 개선해 준다. 또 안정적인 투약으로 인한 약물의 꾸준한 방출은 치료 효과도 높인다.

평생 계속해서 약을 투여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를 비롯해 희귀질환 환자처럼 인벤티지랩의 장기지속형 약물전달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 김주희 대표의 목표다.

김 대표는 지난 1996년 경북대학교에서 생화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05년 한양대학교 의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학사부터 석사까지 생화학을 전공한 그는 다시 경북대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5년 인벤티지랩 창업에 이르기까지 그는 광동제약, 씨젠, 한국슈넬제약, 휴버트바이오, 비씨월드제약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약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 유 종 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국내 처음으로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기반 기업을 설립해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에 도전한 생명공학 전문가이자 의료인이다. 오가노이드 기반 장 질환 재생치료제인 'ATORM(아톰)-C'를 개발해 국내 최초 인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차그룹오가노이드센터 센터장과 차바이오텍의학본부장을 거쳤다. 이후 오가노이드학회총무이사 겸 산학협력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017년 재생 치료제 조성 개발 특허 출원, 2018년 치료제 동결보관법 개발 및 이식 재료 개발 등 최근 5년간 오가노이드 관련 특허만 15건을 출원했다. 오가노이드 관련 논문은 20여 편에 달한다. 사업 성과로는 ▲장 및 침샘 오가노이드 치료제 CMC 개발 및 비임상 개발 ▲오가노이드 전용 GMP 구축 ▲오가노이드 관련 약물평가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차의과대로부터 4건의 재생치료제 기술도입 ▲연세대로부터 침샘치료제 기술도 등이 있다.

### 손 미 영 생명연 국가아젠다연구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은 2005년 입사한 후 지금까지 '장 오가노이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대표 오가노이드 전문가다. 지난 1994년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에 입학해 석사까지 마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국내 1호 바이오벤처로 알려진 바이오니아에서 신약개발팀 소속으로 근무했고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에서는 주임 연구원을 거쳤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 내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에서 재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손미영 소장은 전분화능 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분화 세포를 연구하고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분화 기전를 규명하고 있다.

손 소장은 지난 2020년 장 오가노이드 중 실제 장기와 가장 유사한 모델을 개발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내놨다. 이 오가노이드는 실제 장기와의 유사도가 75%에 달해 앞서 미국 연구진이 만든 장 오가노이드(40%)를 월등히 뛰어넘었다.

### 김 상 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식품공학 전문가다. 충남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2000년에는 석사를, 2019년에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부터 그는 골수기능 저하가 생긴 쥐 등에서 홍삼이나 녹용이 조혈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등 국산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후 국산 천연물, 바이오 등 다양한 연구 부문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며 경력을 쌓았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에서 선임과장을 지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KGC인삼공사에서 천연물 효능,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펼치고 있다. 특히 홍삼을 핵심 성분으로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헬스케어 산업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KGC인삼공사는 홍삼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기전을 갖췄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다. 홍삼의 고지혈증 예방 및 보조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 메트로 한줄뉴스

▲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사임 권고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셔틀콕 여제' 안세영, 프랑스오픈서 시즌 9번째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PSG 이강인, 레버쿠젠 상대로 2년 만에 UCL 득점포 도전

▲손흥민 프리킥 환상 데뷔골…'MLS 올해의 골 후보' 선정

▲올해 '궁중문화축전' 대박났다…137만 방문 '역대 최다'

▲6차선 도로서 뛰고 놀자…'양천가족 거리축제' 오는 26일 개막